
CHAPTER

5

극·수필



05 극·수필

NOTE

126



작자 미상, 「꼭두각시놀음」

제5막 (2)_____ 거리 (주제: (3)_____ 과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본처 소외)

- (1)_____ 와 (2)_____ 의 유랑 끝 극적 재회
- 도토리묵을 먹은 (1)_____ 의 우툴두툴한 얼굴 ↔ 강냉이와 상수리를 삶아 먹어 얼굴이 말끔하다고 우기는 (2)_____
- (2)_____ 이 (4)_____ 을 얻었다고 고백함
- (4)_____ 을 살 집으로 오해함 → 실상 파악 후 (1)_____ 의 실망과 갈등 시작
- 첩으로서의 서열 인사를 거부하던 (5)_____ 이 (1)_____ 의 머리를 들이받는 폭력적인 인사를 함
- 갈등 격화로 인한 (1)_____ 의 세간 분할 요구 ↔ 해남 관머리 지체와 몽둥이를 앞세운 (2)_____ 의 위협
- 마을 구장 (6)_____ 가 등장하여 중재를 약속함
- 구장 (6)_____ 의 극도로 (7)_____ 한 재산 분배
- (5)_____ : 비옥한 논, 뗏목, 온갖 세간 독차지 ↔ (1)_____ : 척박한 개동밭, 깨진 짓독, 장마에 떠밀리는 나무뿌리만 배정
- 편파적인 재산 분배 결과 → (1)_____ 가 서러움에 겨워 춤을 추며 퇴장함

제7막 (8) _____ 재상 거리 (주제: 지배층의 (12) _____ (9) _____ 에 대한 조롱과 (11) _____)

- (8) _____ 모친의 상여가 나옴
- 겉으로는 상주로서 슬픈 척 곡을 함 ↔ 속으로는 모친의 가산(안방)을 독차지하게 된 것을 기뻐하는 (9) _____ 을 보임
- 상두꾼들의 발병으로 상여가 멈춤 → (8) _____ 가 (6) _____ 에게 급히 인부 수급을 명령함
- (6) _____ 가 수선스럽지만 힘이 세고 기운이 역사인 조카 (10) _____ 를 천거함
- 벌거벗은 붉은 알몸 상태로 등장한 (10) _____ 의 거침없는 (11) _____
- 상여에서 강아지 썩는 냄새가 난다며 상주의 부패와 (12) _____ 을 직접적으로 폭로함
- 의관과 체통을 따지는 (8) _____ ↔ 벌거벗었어도 상여만 잘 메면 그만이라는 (10) _____ 의 실리적 태도 대조
- (10) _____ 의 조롱에 격분함 → 주선자였던 (6) _____ 에게 화풀이식 (13) _____ 을 가하며 권위적인 태도를 고수함

NOTE

CONCEPTION 개념

(1) 꼭두각시 (2) 표 생원 (3) 처첩 갈등 (4) 소실 (5) 돌모리집 (6) 박 침지 (7) 불평등 (8) 평안 감사 (9) 패륜성 (10) 흥동지 (11) 풍자 (12) 위선 (13) 태장



극·수필 126 예상문항 1번 (가천대)

유형 A



표현·구절 찾기

[기출 동형] 26가천대9

하 중 상

〈보기〉의 ①, ②를 밑줄에서 찾아 쓰시오.

(①은 말미 조사를 제외할 것.)

구분	상황	재담·풍자의 양상
[제5막] 표 생원 거리	표 생원이 소실을 얻었다고 밝히자, 꼭두각시는 "이 형편에 (①)을 어찌 가리겠소."라고 답한다.	'거처'로서의 집과 '소실'을 뜻하는 말이 겹치는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재담으로 청중의 웃음을 유발하는 동시에, 집을 마련해 정착하려던 꼭두각시의 의지가 좌절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 준다.
[제7막] 평안 감사 재상 거리	평안 감사가 "대부인 상 여인데" 벗은 몸으로 덤벼거리느냐며 체통과 격식을 따지자, 흥동지는 "빨가벗었더라도 상여만 잘 메면 됐지. (②)."이라고 응수한다.	피지배층인 흥동지가 지배층인 평안 감사의 허위의식을 비판하면서 그에 반항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① _____

② _____



극·수필 126 예상문항 2번 (국민대)

유형 K



복합형

[기출 동형] 26국민대3

하 중 상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꼭두각시놀음」의 풍자는 두 축으로 작동한다. 첫째, 소리가 같은 말을 겹쳐 쓰거나 격에 맞지 않는 비속한 언어를 동원하는 재담을 통해 청중의 웃음을 유발하면서, 동시에 인물이 품었던 의지가 좌절되는 과정을 극화한다. 둘째, 문제를 해결해야 할 위치에 있는 인물이 오히려 어처구니없는 처신을 함으로써, 웃음의 화살이 갈등 당사자가 아닌 그 문제를 다루는 자 자신에게로 되돌아간다.

[소문항 1]

〈보기〉의 '재담' 중 첫 번째 방식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꼭두각시의 대사를 지문에서 찾아 그 한 구절(①)을 쓰고, 이때 활용된 어휘상의 원리를 가리키는 용어(②)를 5자 이내로 쓰시오.

① _____

② _____

[소문항2]

㉠ '허허, 나는 가네. 나 돌아가네.'에 담긴 꼭두각시의 정서를, 박 첨지가 그녀에게 분배한 재산의 성격과 관련지어 서술하시오. (띄어쓰기 포함 65자 내외)

③ _____

[소문항3]

〈보기〉의 두 번째 축에 따를 때, 박 첨지의 판결 장면에서 풍자의 표적이 되는 인물을 지문 속 인물로 지목하고(㉡-1), 그 인물이 풍자 대상이 되는 이유를 30~50자로 서술하시오(㉡-2). (단, ㉡-2에는 '편파적'과 '위선(또는 무능)'이라는 핵심어를 포함할 것. 띄어쓰기 포함 30~50자)

㉡-1 _____

㉡-2 _____

극·수필 126 예상문항 3번 (상명대)

유형 A	표현·구절 찾기
	[기출 동형] 26상명대5

다음은 윗글을 읽고 작성한 감상 정리 글이다. 윗글을 참고하여 ①, ②에 들어갈 말을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

「꼭두각시놀음」 제5막에서 표 생원은 오랜만에 만난 큰부인 꼭두각시에게 자식이 없음을 내세워 자신이 '작은 집'을 얻었음을 밝힌다. 그런데 꼭두각시가 이를 거처(居處)로 오해하여 '재목'과 '장'을 걱정하자, 표 생원은 답답해하며 그것이 정식 아내 외에 데리고 사는 여자, 곧 (①)을/를 얻었다는 뜻이라고 한자어로 다시 밝힌다. 이처럼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재담은 청중의 웃음을 유발하는 동시에, 집을 마련해 정착하려던 꼭두각시의 소망이 좌절되는 과정을 함께 드러낸다.

이어 처첩 갈등이 재산 분배 문제로 번지자, 박 첨지는 "남의 집안 문제나 내 몸은 일개 (②)(으)로 모르는 체 할 수 없어"라며 자신의 공적 지위를 내세워 분쟁에 개입한다. 그러나 그가 내린 판결은 값나가는 재물은 모두 돌모리집에게 주고 꼭두각시에게는 '개똥밭 하루갈이'와 '매운 짓독 깨진 걸'만 넘기는 매우 편파적인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당대 관리의 위선과 무능이 풍자된다.

- ① _____
 ② _____

극·수필 126 예상문항 4번 (삼육대)

유형 N-7	신유형: 문장 첫·끝 어절
	[기출 동형] 26삼육대7

〈보기〉는 「꼭두각시놀음」에 나타난 풍자와 재담의 세 가지 양상을 정리한 것이다. ㉠~㉣에 해당하는 대사를 윗글에서 각각 찾아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쓰시오. (단, 문장 부호는 쓰지 않으며, ㉣은 한 문장 전체를 대상으로 함.)

「꼭두각시놀음」은 현실의 부정적 현상이나 모순을 무언가에 빗대어 비웃으며 폭로·비판하는 풍자의 기법을 다양하게 활용한다.

㉠ **동음이의어를 이용한 재담**: 소실(小室)을 얻었다는 남편의 말을 '거처'로 오해한 인물의 대사에서, 청중의 웃음을 유발하는 동시에 집을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던 인물의 의지가 좌절되어 가는 과정이 함께 드러난다. (꼭두각시의 대사 중 한 문장)

㉡ **지배층의 횡포에 대한 폭로**: 상여를 메는 일을 지체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가혹한 형벌을 받을 수 있음을 우려하는 대사를 통해, 조선 후기 지배층의 부당한 횡포를 피지배층의 처지에서 폭로하고 비판한다. (박 첨지의 대사 중 한 문장)

㉢ **지배층의 허위의식에 대한 반향**: 상주가 체통과 격식을 따지며 꾸짖자, 실질적인 일의 수행 여부만이 중요하다고 맞받아침으로써 지배층의 허위의식을 비판하고 그에 반향하는 태도를 보인다. (홍동지의 대사 중 한 문장)

- ㉠ 첫 어절: _____, 마지막 어절: _____
 ㉡ 첫 어절: _____, 마지막 어절: _____
 ㉢ 첫 어절: _____, 마지막 어절: _____



극·수필 126 예상문항 1번 (가천대)

출제 의도

• EBS 연계 방식: 문항연계. EBS 3번(풍자 감상) 선지 ①의 '동음이의어를 사용한 재담' → 정착 의지의 좌절'과 선지 ⑤의 '허위의식 비판·반향'이라는 두 판단 논리를 하나의 정리 표(해설문)로 통합 재구성하고, 각 선지가 근거로 인용한 지문 구절('큰 집 작은 집', '무삼 잔말')을 빈칸으로 전환하였다. 아울러 EBS 4번 선지 ②의 '거리별 대결 양상'을 표의 구분 축으로 활용하였다.

• 측정 능력: 재담(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유희)과 풍자의 기법에 대한 해설을 읽고, 그 해설에 정확히 대응하는 지문 원문의 대사를 지목·인용하는 능력. 지배층의 허위의식과 피지배층의 반향이라는 대립 구조를 대사 차원에서 확인하는 능력.

정답과 해설

정답: ① 큰 집 작은 집 ② 무삼 잔말

해설:

① <보기>의 "이 형편에 ①을 어찌 가리겠소"는 제5막 꼭두각시 대사와 문장 형태가 같다. 표 생원이 "소실을 얻었다 말이며"라 말한 직후를 보라. 해설의 '동음이의어'는 거처인 '작은 집'과 소실인 '작은집'의 중첩이므로, 두 집을 함께 든 '큰 집 작은 집'을 원문 그대로 옮긴다.

② <보기>의 "상여만 잘 메면 됐지." 뒤에 이어질 말을 찾으면 된다. 제7막에서 평안 감사가 "빨가벗고 덩벼거리느냐?"라며 체통을 따진 직후 흥동지의 대사가 답이다. 격식을 '잔말'로 깎아내린 어구가 곧 허위의식 비판이니, '무삼 잔말'을 현대어로 고치지 말고 그대로 쓴다.

채점기준

답안	배점
① 큰 집 작은 집	5점
② 무삼 잔말	5점



극·수필 126 예상문항 2번 (국민대)

출제 의도

• EBS 연계 방식: 문항 연계 중심. ①EBS 3번 <보기>의 '풍자' 분석틀(재담·의지의 좌절·기득권층 격하)을 새 <보기>로 재맥락화하여 정답 산출 근거로 전환. ②EBS 3번의 오답 선지 ①(동음이의어 재담 + 정착 의지 좌절)을 소문항 1의 '구절 찾기 + 개념어 추출'로 변환.

정답과 해설

정답: ① 큰 집 작은 집을 어찌 가리겠소 ② 동음이의어
③ 개똥발과 깨진 짓독 등 쓸모없는 재산만 받아 기대가 무너지고, 허탈감과 서러움을 느끼며 체념한 채 떠나려는 심정이다.
④-1 박 첨지 ④-2 첨에게 유리한 편파적 재산 분배로 관리의 위선과 무능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해설:

①, ② 지문의 "아이고 듣던 중 상쾌한 말이오. 이 형편에 큰 집 작은 집을 어찌 가리겠소." → 이어지는 "집을 얻었으니 재목(材木)이나 성하며, "소실(小室)을 얻었다 말이며"에서 ①의 정답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또한 ②는 거처를 뜻하는 '작은 집'과 소실을 뜻하는 '작은집'이 소리가 같다. 이는 '동음이의어'이다.

③ 지문의 "뒤꼍에 돌아가 개똥발 하루같이와 매운 짓독 깨진 걸랑 꼭두각시 너 다 가져라." / "인사도 싫으니 세간을 나눠 주오."에서 정답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④-1 지문의 "내가 한 마을의 구장으로 잘 처리하겠으니 염려 마우."에서 정답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④-2 지문의 "돌모리집은 왕십리에 구실은 두 되하는 논 네 마지기를 주고~은장 봉장 자개 함롱 반달이는 글랑 모두 돌모리집 주고"에서 정답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채점기준

답안	배점
① 큰 집 작은 집을 어찌 가리겠소 ② 동음이의어	2점
③ 개똥발과 깨진 짓독 등 쓸모없는 재산만 받아 기대가 무너지고, 허탈감과 서러움을 느끼며 체념한 채 떠나려는 심정이다.	4점
④-1 박 첨지 ④-2 첨에게 유리한 편파적 재산 분배로 관리의 위선과 무능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4점



극 · 수필 126 예상문항 3번 (상명대)

출제의도

• EBS 연계 방식: 문항연계. EBS 1번 오답 해설(표 생원이 돌 모리집을 들인 이유를 합리화하는 대목), 3번 ①번 선지('큰 집 작은 집'의 동음이의어 재담과 정착 의지의 좌절), 3번 정답 ②번 선지(박 첨지의 편파적 판결 → 관리의 위선과 무능 풍자)의 판단 근거를 하나의 감상 정리 글로 재구성한 뒤, 선지의 정오 판단 핵심 개념어인 '소실', '구장'을 빈칸 정답으로 추출하였다. EBS의 '선지 고르기'를 '핵심 개념어 기입'으로 전환한 형태이다.

• 측정 능력: 재담(동음이의어 활용)의 언어적 구조를 이해하고, 등장인물이 스스로 내세운 신분·지위 표현을 지문에서 정확히 찾아내어 작품의 풍자 대상(가부장적 처첩 제도, 무능한 관리)을 연결해 파악하는 능력.

정답과 해설

정답: ① 소실(小室) ② 구장(區長)

해설:

① 빈칸 앞 "정식 아내 외에 데리고 사는 여자"는 지문 각주 풀이와 똑같다. 각주가 달린 말을 대사에서 찾으려면 표 생원이 "소실(小室)을 얻었던 말이며."라고 고쳐 말한 부분이다. 꼭두각시가 집으로 오해한 '작은집'은 답이 아니며, '한자어로 다시 밝힌다'는 단서에 맞춰 소실(小室)을 쓴다.

② <보기>의 큰따옴표 인용이 박 첨지 대사와 글자까지 일치하므로, 그 대사에서 "일개 □□(으)로" 자리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된다. 뒤이어 "한 마을의 구장으로 잘 처리하겠으니"라는 대사가 공적 지위임을 재확인해 준다. 이장·촌장으로 바꾸지 말고 구장(區長)으로 쓴다.

채점기준

답안	배점
① 소실(小室)	5점
② 구장(區長)	5점



극 · 수필 126 예상문항 4번 (삼육대)

출제의도

• EBS 연계 방식: 문항연계. EBS 3번 문항의 <보기>(풍자의 개념 정의 및 기법 설명)를 대학 <보기>의 도입 서술로 재구성하고, EBS 3번의 정답·오답 선지에 제시된 세 가지 분석 요소 — ①선지의 '동음이의어를 사용한 재담 + 정착하려는 인물의 의지 좌절', ④선지의 '가혹한 형벌 우려 → 지배층 횡포 폭로', ⑤선지의 '체통·격식에 맞선 허위식 비판과 반항' — 을 ①㉠㉡ 세 세부 유형으로 재분류하였다. EBS가 선지에서 예시로 든 표현('큰 집 작은 집을 어찌 가리겠소', '주릿대학춤, 고드래빠 튕겨지', '빨가벗었더라도 상여만 잘 메면 됐지')을 그대로 정답 근거로 삼아, 5지선다 판단 문항을 '해당 대사 찾아 첫·마지막 어절 쓰기'의 서술형으로 전환하였다.

• 측정 능력: 풍자·재담이라는 이론적 준거를 실제 극 대사에 대응시키는 능력, 서로 다른 두 거리(제5막·제7막)를 넘나들며 동일 준거의 사례를 변별해 내는 종합적 독해력

정답과 해설

정답: ㉠ 첫 어절: 이 / 마지막 어절: 가리겠소 ㉡ 첫 어절: 만일 / 마지막 어절: 나오너라 ㉢ 첫 어절: 빨가벗었더라도 / 마지막 어절: 됐지

해설:

㉠ '소실(小室)=작은 집'으로 오해하는 재담 장면을 찾는다. <보기>가 요구한 '집 마련 의지'가 드러난 곳은 감탄만 있는 '아이고~말이오'가 아니라, '큰 집 작은 집'을 직접 언급한 문장이다. 첫 어절이 관형사 '이' 한 글자임에 유의한다.

㉡ '가혹한 형벌'은 지문의 '주릿대학춤, 고드래빠 튕겨지'로 구체화된다. 이 표현이 포함된 문장을 잡되, 앞의 '지금 한 말 못 들었느냐?'는 형벌 언급이 없는 별개 문장이므로 제외하고, '만일'로 시작해 '나오너라'로 끝나는 한 문장만 지목한다.

㉢ 상주(평안 감사)가 '벗은 몸'을 두고 체통을 따지자, 흥동지는 차림이 아니라 '상여 매기'라는 실질 수행만 내세워 맞선다. 이 대립이 한 문장에 압축된 곳을 찾고, 뒤의 '무삼 잔말'은 별개 구이므로 마지막 어절은 '됐지'로 끊는다.

채점기준

답안	배점
㉠ 첫 어절: 이 / 마지막 어절: 가리겠소	4점
㉡ 첫 어절: 만일 / 마지막 어절: 나오너라	3점
㉢ 첫 어절: 빨가벗었더라도 / 마지막 어절: 됐지	3점



05 극·수필

NOTE

127



차범석, 「불모지」

장면 1 (1)_____에 따른 (2)_____ 문제와 집을 둘러싼 세대 간의 갈등

- 공동 수도의 (1)_____으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 불편을 겪는 경재와 경운
- 낙후된 동네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2)_____가기를 원하는 경재 ↔ 오랜 세월 살아온 제집을 지키고 사는 것에 안도를 느끼는 최 노인의 (3)_____대립
- 공부 약속으로 바쁜 경재를 배려해 허리가 아직 불편함에도 어머니가 물을 길겠다고 자처하며 갈등이 일시적으로 봉합됨

장면 2 급격한 (4)_____로 인한 원주민의 소외감과 현대 사회에 대한 한탄

- 과거 오십 년 가까이 정답게 교류하며 종로에서 살아온 삶을 회상함
- 이웃에 높이 들어선 인접 건물들 → 일 년 열두 달 내내 마당에 (5)_____조차 들지 않는 척박한 환경으로 변함
- 이웃의 피해나 고충은 무시한 채 자신들의 사리사욕만 챙기며 건물만 높게 쌓아 올리는 이웃들의 (6)_____없는 행태를 비판함

장면 3 (7)_____ 김 첨지와 경수 사이의 무례한 언사로 인한 충돌

- 가게와 살림집이 붙은 종로 한복판의 집값으로 (7)_____이 겨우 이백오십만 원을 제시하는 것에 경수가 당치도 않다며 반발함
- 젊은 경수의 무례하고 충동적인 언사((8)_____비유) → (7)_____김 첨지의 극심한 분노 및 갈등 폭발
-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는 요즘 젊은 세대의 행동에 대해 최 노인과 어머니가 정중히 대리 사과하며 갈등 수습을 시도함

장면 4 집 매매에 대한 오해와 최 노인의 새로운 사업 계획

- 자식들은 아버지가 집을 파는 것으로 오해함 ↔ 최 노인은 집을 (9)___로 내놓아 독자적인 자금을 확보하려 한 것임
- (9)___금 이백오십만 원을 마련하여 '(10)_____' 사업을 시작하려던 최 노인의 독자적인 구상이 밝혀짐
- 자식들이 아버지를 돕기는커녕 사사건건 방해하고 집을 가로챌 궁리만 한다고 여기는 최 노인의 극심한 불신과 노여움

장면 5 현실적인 한계와 (11)___에서 비롯된 파열적 좌절감

- 평생에 걸쳐 매사에 정성을 쏟았으나 자식들과의 (11)___ 및 사회적 변화로 인해 제대로 풀리는 일이 없는 척박한 현실을 절감함
- 흔한 (5)___조차 들지 않는 어두운 집의 물리적 환경 원망 → 마음에 쌓인 오랜 울분과 좌절감이 한꺼번에 폭발함
- 극단적인 울분과 분노 조절 실패 → 오랜 시간 정성을 다해 손수 가꾸어 온 마당의 (12)___을 스스로 짓밟고 훼손하는 파괴적 행동으로 이어짐

NOTE

CONCEPTION 개념

(1) 물 부족 (2) 이사 (3) 가치관 (4) 도시화 (5) 햇볕 (6) 염치 (7) 복덕방 (8) 공동묘지 (9) 전세 (10) 사불보오드
(11) 불통 (12) 화초밭



극·수필 127 예상문항 1번 (가천대)

유형

C-1



EBS 보기 빈칸 (문학)

[기출 동형] 26가천대4

하

중

상

다음은 EBS 수능특강의 <보기>와 이를 바탕으로 한 감상 내용이다. ①~③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

「불모지」는 1950년대 전후(戰後)의 서울 중심가에 있는 최 노인 일가의 집을 배경으로, 당시 급속도로 추진되던 도시화·근대화과 같은 시대 변화에 대한 적응 양상을 다룬 사실주의 희곡이다. 이 작품은 고층 건물들에 둘러싸인 낡은 기와집에서 살아가는 가족 내 갈등과 세대 간 갈등을 다룸으로써 마치 불모지(不毛地), 즉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거칠고 메마른 땅과도 같았던 당대의 사회적 혼란상을 보여 준다.

[감상]

○ 자식들은 '이따위 골목 구석에서 살고 싶어 살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데 반해, 최 노인은 도깨비가 나건 노다지가 나건 (①) (으)로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집이라는 공간을 두고 벌어지는 가족 내 갈등을 파악할 수 있다.

○ 서울 중심가 곳곳에서 집들이 '층층이 쌓아 올라가는 것은 도시화·근대화가 급속히 추진되는 양상을, 최 노인이 '4가에 적당한 집이 있다'며 해 볼까 한다는 (②)은 /는 서구 문물의 유입을 보여 주는 소재이다.

○ 고층 건물들에 둘러싸여 '(③)' 까닭에 '정성을 들여서 가꾼' 화초조차 제대로 자랄 수 없는 상황 설정은, 최 노인의 집과 나아가 당대 사회가 불모지와 같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8음절로 쓸 것)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 ①은 5어절로 쓰되 말미 조사는 제외할 것.



극·수필 127 예상문항 2번 (강남대)

유형 A



표현·구절 찾기

[기출 동형] 26강남대3

하

중

상

다음 <보기>는 윗글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①, ②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윗글에서 찾아 그대로 쓰시오.

항목	내용
배경	1950년대 전후(戰後) 서울 종로 한복판, 고층 건물에 둘러싸인 낡은 한옥
최 노인의 태도	사십칠 년을 살아온 집에 애착을 지님. 그러나 좌우에 층층이 쌓아 올린 집들 때문에 일 년 열두 달 (①) 구경조차 못 하게 된 현재 상황에 불만을 터뜨림.
갈등의 촉발	최 노인이 4가에 적당한 집을 얻어 실내 오락인 (②)을/를 해 볼 생각으로 집을 전세 내놓으려 한 일을, 가족들은 집을 파는 것으로 오해함.
상징	정성 들여 가꾼 화초조차 자라지 못하는 마당 → 메마른 땅, 곧 당대 사회의 혼란상

① _____

② _____

극·수필 127 예상문항 3번 (삼육대)

유형 N-7	신유형: 문장 첫·끝 어절 [기출 동형] 26삼육대7	하 중 상
-----------	----------------------------------	-------

다음은 「불모지」를 감상하기 위한 학습 자료이다. <보기>의 ㉠~㉣에 해당하는 한 문장을 각각 찾아,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쓰시오.
(문장 부호와 말줄임표는 원문 그대로 표기할 것.)

「불모지」는 1950년대 전후(戰後) 서울 중심가의 낡은 기와집을 배경으로, 급속히 추진된 도시화·근대화라는 시대 변화에 대한 적응 양상을 그린 사실주의 희곡이다. 이 작품의 갈등과 상징은 다음 세 가지 층위에서 확인된다.

㉠ 도시화·근대화에 따른 생활 침해에 대한 불만 — 좌우의 높은 집들을 쏘아보며, 이웃에 들어선 고층 건물 때문에 자기 가족이 일 년 내내 별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최 노인의 대사.

㉡ 언어 예의 규범을 둘러싼 세대 간 가치관의 차이 — 무례한 말을 한 아들을 대신해 사과하면서, 아들의 잘못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젊은 세대 전체의 특성으로 일반화하여 상대의 노여움을 달래려 하는 어머니의 대사.

㉢ '불모지'라는 제목의 상징성 — 화초밭으로 나와 그것을 짓밟기 직전, 별이 들지 않는 집에서는 그 어떤 일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인식을 반문의 형식으로 드러내는 최 노인의 대사.

- ㉠ 첫 어절: _____, 마지막 어절: _____
 ㉡ 첫 어절: _____, 마지막 어절: _____
 ㉢ 첫 어절: _____, 마지막 어절: _____

극·수필 127 예상문항 4번 (수원대)

유형 C	화자·인물 분류표 [기출 동형] 26수원대8	하 중 상
------	-----------------------------	-------

다음 <보기>는 윗글에 대한 감상의 관점을 제시한 것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한 아래 표의 ①~③에 들어갈 말을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

「불모지」는 1950년대 전후(戰後)의 서울 중심가에 있는 최 노인 일가의 집을 배경으로, 당시 급속도로 추진되던 도시화·근대화와 같은 시대 변화에 대한 적응 양상을 다룬 사실주의 희곡이다. 이 작품은 고층 건물들에 둘러싸인 낡은 기와집에서 살아가는 가족 내 갈등과 세대 간 갈등을 다룸으로써 마치 불모지(不毛地), 즉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거칠고 메마른 땅과도 같았던 당대의 사회적 혼란상을 보여 준다.

감상의 초점	작품에서 확인되는 근거	감상 내용
가족 내 갈등	이사를 원하는 자식들 ↔ 최 노인의 "도깨비가 나건 노다지가 나건 (①)"	'집'을 두고 가족 간 갈등이 드러남
도시화·근대화	최 노인이 새 사업으로 언급한 (②)	서구 문물 유입과 근대화의 흐름이 나타남
'불모지'의 상징성	고층 건물에 둘러싸여 (③) 집	당대 사회가 메마른 땅과 같음을 상징함

※ ①은 6어절, ③은 관형절 형태로 쓸 것. 두 답 모두 원문 표현을 그대로 쓰되 문장 부호는 제외할 것.

-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극·수필 127 예상문항 1번 (가천대)

출제 의도

• EBS 연계 방식: 문항연계 — EBS 3번 문항의 <보기>(불모지의 창작 배경·상징성)를 그대로 이전하고, 선지 ①·③·⑤의 감상 논리를 해설문으로 통합·재구성한 뒤, 각 선지가 근거로 인용한 지문 원문 구절(최 노인의 대사 3곳)을 빈칸화하였다. ①은 가족 내 갈등, ②는 서구 문물 유입(선지 ③), ③은 불모지의 상징성(선지 ⑤)에 각각 대응한다.

• 측정 능력: 외적 준거(<보기>의 '가족 내 갈등', '서구 문물 유입', '불모지의 상징성')를 희곡 대사의 특정 구절과 정확히 연결하는 능력, 극 중 인물의 발화 표기(샤폴이불/샤폴보오드)를 구별해 원문 표현을 정확히 추출하는 능력.

정답과 해설

정답: ① 제집 지니고 산다는 걸 다행 ② 샤폴보오드 ③ 흔한 햇볕도 안 드는

해설:

① 감상문에 인용된 '도깨비가 나건 노다지가 나건'을 지문에서 찾으면 바로 뒤가 답이다. 이는 집을 떠나려는 자식들의 '이따위 골목 구석'에 맞서 최 노인이 내세운 반박이므로, '가족 내 갈등'의 축인 집에 대한 애착이 담긴 구절이다. 말미 조사 '으로'를 제외하여 '제집 지니고 산다는 걸 다행'을 쓴다.

② '4가에 적당한 집'을 단서로 중략 이후 최 노인의 사업 구상 대사를 찾는다. 최 노인이 처음 말한 '샤폴이불'은 잘못된 발음이고, 경운이 바로잡아 준 뒤 최 노인이 "그래, '샤폴보오드' 말이야!"라며 확정된 표기가 정답이다. 서구 문물 유입을 보여 주는 소재다.

③ '정성을 들어서 가꾼' 화초밭 장면은 결말부이므로 그 직전 최 노인의 대사에서 원인을 찾는다. "되는 거라곤 하나도 없어!"에 이어지는 구절 중 8음절 조건에 맞는 것은 '흔한 햇볕도 안 드는'뿐이다. 글자 수 제한이 유사 표현을 걸러 주는 결정적 단서다.

채점기준

답안	배점
① 제집 지니고 산다는 걸 다행	3점
② 샤폴보오드	3점
③ 흔한 햇볕도 안 드는	4점



극·수필 127 예상문항 2번 (강남대)

출제 의도

• EBS 연계 방식: 문항연계. EBS 2번 문항 정답 해설의 근거 ([B]의 '일 년 열두 달 햇볕 구경이라곤 못 하게 되었지')와 3번 문항 ③·⑤ 선지의 판단 근거('샤폴보오드'의 유행 = 서구 문물 유입, '흔한 햇볕도 안 드는' = 불모지 상징)를 추출하여, 선다형 선지가 '설명한 대상'을 수험생이 지문에서 직접 찾아 쓰게 하는 선지→정답 역변환 구조로 재구성함. EBS 보기·선지를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출제자가 작성한 작품 정리 표로 이식함.

• 측정 능력: 희곡의 배경·인물의 정서와 상황을 대사에서 정확히 근거를 찾아 파악하는 능력, 갈등의 발생 원인이 되는 사건 정보를 지문에서 추출하는 능력, 제목 '불모지'의 상징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소재를 특징하는 능력.

정답과 해설

정답: ① 햇볕 ② 샤폴보오드

해설:

① 보기의 '층층이 쌓아 올린 집들', '일 년 열두 달 ~ 구경'이 최 노인 대사와 문장 구조까지 일치한다. [B]에서 높은 집들을 쓰아보며 "일 년 열두 달 햇볕 구경이라곤 못 하게 되었지!"라 했으므로 두 글자 '햇볕'을 그대로 옮긴다. '햇빛'은 오답이다.

② '4가에 적당한 집', '실내 오락'이 단서다. 중략 이후 최 노인이 집을 보인 이유를 밝히는 대사를 찾으면, 최 노인의 부정확한 발음 '샤폴이불'을 경운이 바로잡고 최 노인도 되받은 표기가 나온다. 각주의 '셔폴보드'가 아닌 '샤폴보오드'를 써야 한다.

채점기준

답안	배점
① 햇볕	5점
② 샤폴보오드	5점



극·수필 127 예상문항 3번 (삼육대)

출제의도

• EBS 연계 방식: 문항연계. EBS 3번 〈보기〉의 ‘1950년대 전후 서울 중심가’, ‘도시화·근대화에 대한 적응’이라는 이론틀과, 선지에 제시된 ‘생활 침해에 대한 불만’, ‘세대 간 가치관 차이’, ‘제목의 상징성’이라는 핵심 개념어를 추출하여 〈보기〉의 안내틀로 재구성하였다.

• 측정 능력: EBS의 ‘적절성 판단’ 객관식을 ‘해당 대사 찾기’ 서술형으로 전환하였다. 학생은 개념어(침해·일반화·반문)를 실제 대사 총위에서 식별해야 하므로, 선지 암기가 아닌 지문 정독 능력이 요구된다.

정답과 해설

정답: ㉠ 첫 어절: 게다가 / 마지막 어절: 되었지! ㉡ 첫 어절: 요즘 / 마지막 어절: 아니까요……. ㉢ 첫 어절: 흔한 / 마지막 어절: 말이야!

해설:

㉠ 지문 근거(원문 인용) 최 노인: 사실이야! 빌어먹을 것! (좌우의 높은 집을 쏘아보며) 무슨 집들이 저따위가 있어! “게다가 저것들 등쌀에 우린 일 년 열두 달 햇볕 구경이라곤 못 하게 되었지!”

㉡ 지문 근거(원문 인용) 어머니: 넌 잠자코 있어! 용서하시우. “요즘 젊은 놈들이란 아무 생각 없이 말을 아니까요…….” 게다가 술을 마셨다우.

㉢ 지문 근거(원문 인용) 최 노인: 듣기 싫어! (화초밭으로 나오며) 이 집안에서는 되는 거라곤 하나도 없어! “흔한 햇볕도 안 드는 집에 뵈이 된단 말이야!” 뵈이 돼!

채점기준

답안	배점
㉠ 첫 어절: 게다가 / 마지막 어절: 되었지!	4점
㉡ 첫: 요즘 / 마지막: 아니까요…….	3점
㉢ 첫 어절: 흔한 / 마지막 어절: 말이야!	3점



극·수필 127 예상문항 4번 (수원대)

출제의도

• EBS 연계 방식: 문항연계 — EBS 3번의 〈보기〉(1950년대 전후 서울, 도시화·근대화 적응 양상, 가족 내 갈등·세대 간 갈등, ‘불모지’의 상징)를 원문 그대로 감상의 틀로 유지하고, 선지 ①·③·⑤에서 ‘분석 결과’로 제시되었던 구체적 인용 표현(“제집 지니고 산다는 걸 다행으로 알아”, “샤불보오드”, “흔한 햇볕도 안 드는”)을 정답으로 역설계하였다. 즉 ‘해석 제시 → 해당 구절 찾기’의 역방향 전환이며, 표는 ‘감상의 초점 - 작품 근거 - 감상 내용’ 3열 구조로 간결하게 재배치하였다.

• 측정 능력: 외적 준거(〈보기〉)의 이론적 개념을 작품의 구체적 대사·지시문과 연결하여 근거를 정확히 찾아내는 능력, 그리고 찾은 근거를 원문 표현 그대로 옮겨 쓰는 정확한 인용 능력을 함께 평가한다.

정답과 해설

정답: ① 제집 지니고 산다는 걸 다행으로 알아 ② 샤불보오드 ③ 흔한 햇볕도 안 드는

해설:

① 빈칸 앞 “도깨비가 나건 노다지가 나건”이 그대로 제시되었으므로, 이 대사를 지문에서 검색해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만 옮기면 된다. 최 노인이 화를 내며 자식들의 이사 요구를 반박하는 대목으로, ‘집을 지니고 산다는 사실 자체’를 다행으로 여기는 태도가 답이다.

② ‘도시화·근대화, 서구 문물 유입’이라는 감상 내용에 주목하면, 지문에서 외래어로 표기된 새 사업 이름을 찾아야 한다. 최 노인이 이름을 정확히 몰라 “샤불이불”이라 하자 경운이 “샤불보오드”로 바로잡는 대화가 근거이므로, 정확한 명칭을 쓰면 된다.

③ ‘불모지=식물이 못 자라는 땅’과 ‘화초가 자라지 못함’을 연결하면 원인은 일조량 부족이다. 최 노인의 “흔한 햇볕도 안 드는 집에 뵈이 된단 말이야!”에서 관형절 부분만 그대로 옮겨야 하며, ‘햇볕 구경도 못 하는’은 다른 대사이므로 감점된다.

채점기준

답안	배점
① 제집 지니고 산다는 걸 다행으로 알아	4점
② 샤불보오드	3점
③ 흔한 햇볕도 안 드는	3점



05 극·수필

NOTE

128



윤대성, 「노비 문서」

장면 1 충주성의 위기와 노비 방랑 제안

- (1)_____ 침입으로 충주성 위기 봉착 → 부호, 사대부, 군사들의 성 도주
- (4)_____의 위기 극복을 위한 노비군 조직 및 (2)_____ 제안
- 부사와 판관의 반대(전례 없음, 부호 불평 및 관노 공백 우려)
- 나라와 왕을 위한 투쟁 요구(부사) ↔ 자신의 (3)_____를 위한 자발적 투쟁 유도((4)_____)
- (5)_____의 결단 유도 → 위기 극복을 위한 노비 (2)_____ 약속

장면 2 전쟁 승리와 신분 해방 약속의 위기

- (2)_____ 약속을 통한 노비군 조직 → 뛰어난 활약으로 (1)_____ 격퇴 성공
- 신분 해방 기대감에 부른 노비들의 장터 잔치 개최
- (5)_____의 잔치 금지 조치 → 무장한 노비들의 불만 및 의심 증폭

장면 3 신분 질서 유지와 가혹한 노비 세습제도 비판

- 상하의 준비와 상하 분별은 천여 년 내려온 당연한 생활 질서임((5)____)
- 형벌 기한 후 평민 복귀 원칙 소멸 ↔ 자자손손 종신토록 (6)____처럼 매매되는 비극적 현실 비판((4)____)
- 급격한 신분 해방에 따른 풍속과 법의 혼란 및 하극상 우려((5)____)
- 신분의 고하를 가리지 않는 공평한 법 집행과 상벌 확립 촉구((4)____)

장면 4 통치 철학의 대립과 약속 파기(배신)의 갈등

- 다스리는 근본은 (7)____((5)____) ↔ 백성의 마음을 얻는 인덕과 의로움((4)____)
- 신의를 잃은 의롭지 못한 (7)____ → 또 다른 (7)____에 의한 멸망 및 백성의 이탈 경고((4)____)
- 국가 제도 한계 및 기득권(왕, 사대부, 가족) 보호 → (2)____ 약속 파기 및 (8)____의 정당화((5)____)

NOTE

CONCEPTION 개념

(1) 몽골군 (2) 방랑 (3) 자유 (4) 노승 (5) 이자현 (6) 우마 (7) 힘 (8) 배신



극·수필 128 예상문항 1번 (가천대)

유형 A



표현·구절 찾기

[기출 동형] 26가천대9

하

중

상

다음은 윗글을 감상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보기>의 ①, ②에 들어갈 말을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

「노비 문서」에서 노승은 노비를 싸움에 동원하기 위한 조건으로 방랑을 제안하는데, 이는 노비를 (①)에서 풀어 주어 자유민으로 만드는 조치이다. 노승은 노비들이 나라나 왕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자유를 위해 싸울 때에야 기꺼이 목숨을 내던질 것이라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한 뒤 이자헌 대감은 다스리는 근본이 힘이라고 주장하며 노승이 내세운 인과 덕의 통치를 부정하고,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똑같이 자유를 누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에 노승은 백성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백성이 대감을 버릴 것이라 경고하며, 자고로 다스리는 자는 (②)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대립은 민중을 기만하고 자유를 억압했던 1970년대 지배 세력의 모순을 우회적으로 고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_____

② _____

※ ①, ②는 말미 조사를 제외할 것.



극·수필 128 예상문항 2번 (신한대)

유형

N-5



신유형: 조건부 완성

[기출 동형] 26신한대17

하

중

상

<보기>의 ①, ②, ③에 들어갈 말을 제시문에서 찾아 <조건>에 맞게 쓰시오.

윤대성의 「노비 문서」는 인간 존엄의 회복과 해방을 위한 투쟁과 그 좌절을 다룬 작품이다. 몽골군의 침입으로 충주성이 위기에 빠지자 노승은 노비를 천적에서 풀어 주어 자유민으로 만드는 (①)을/를 조건으로 내걸어 노비들을 싸움에 동원하자고 제안한다. 노승은 노비 제도의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한번 종이 되면 자자손손 종신토록 (②)와/과 같이 재산처럼 팔고 팔리는 처지가 되었음을 문제 삼는데, 이는 노동을 착취당하고 인권을 유린당했던 1970년대 민중들의 삶이 투영된 대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뒤 이자헌 대감은 준비와 상하의 분별을 내세우며 약속을 뒤집는다. 이때 두 인물의 통치관은 뚜렷이 갈리는데, 노승은 힘이 아니라 (③)(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하며 다스리는 자는 신의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는 반면, 이자헌 대감은 다스리는 근본은 힘이라고 단언하며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당연시하는 비민주적 의식을 드러낸다.

<조건>

- ①, ②는 제시문에 나온 2음절 한자어를 그대로 쓸 것.
- ③은 공백 제외 3자로 쓰되, 말미 조사는 제외할 것.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극·수필 128 예상문항 3번 (한신대)

유형 N-7	신유형: 문장 첫·끝 어절 [기출 동형] 26한신대14	하 중 상
-----------	-----------------------------------	-------

다음 <보기>는 윤패성의 감상한 내용의 일부이다. ㉠~㉣에 해당하는 한 문장을 각각 찾아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쓰시오. (어절은 원문 그대로 쓰되, 문장 부호는 생략 가능.)

윤패성의 「노비 문서」는 고려 시대의 노비 해방 운동을 모티브로 삼아, 작품이 발표된 1970년대의 억압적 정치 현실을 우회적으로 고발한 서사극이다. 이 작품에서 노승은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당연시하는 지배 계층의 비민주적 사고에 맞서, ㉠나라의 주인이 왕이 아니라 백성임을 직접적으로 선언하는 발언을 한다. 또한 노승은 한번 종이 되면 면천하기 어려운 고려의 제도를 문제 삼으면서, ㉡노비가 자손 대대로 가축과 같은 재산으로 매매되는 현실을 '천하 고금에 없는 제도'라고 규정하는 발언을 통해, 노동을 착취당하고 인권을 유린당했던 민중의 삶을 환기한다.

반면 이자헌 대감은 인과 덕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는 노승의 제안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치부한다. 특히 ㉢통치의 근본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한 낱말로 압축하여 단언하는 발언은, 백성의 자유보다 지배 체제의 유지를 앞세우는 지배 세력의 폭력적 통치관을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 ㉠ 첫 어절: _____, 마지막 어절: _____
 ㉡ 첫 어절: _____, 마지막 어절: _____
 ㉢ 첫 어절: _____, 마지막 어절: _____

극·수필 128 예상문항 4번 (을지대)

유형 C	화자·인물 분류표 [기출 동형] 26을지대3	하 중 상
------	-----------------------------	-------

<보기>는 윤패성의 「노비 문서」에 대한 감상 활동지의 일부이다. 표의 감상 관점을 참고하여 아래 진술문 (가)~(마) 중 적절하지 않은 것 하나를 찾아 그 기호를 쓰고(㉠), 해당 진술문의 밑줄 친 부분을 올바르게 고친 표현을 제시하시오(㉡).

「노비 문서」(1973)는 '만적의 난'을 모티브로, 1970년대 지배 세력의 모순과 비민주적 사고를 비판한 서사극이다. 이 작품은 패배주의와 허무 의식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군부 독재 정권에 의해 검열되었다.

감상 관점	관점의 초점
㉠ 지배층의 모순·기만 고발	방랑 약속의 파기 과정에 드러난 지배층의 자기 합리화
㉡ 민중의 현실 반영	노동 착취·인권 유린의 대상으로 취급되는 존재의 형상화
㉢ 비민주적 의식 비판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당연시하는 발화
㉣ 창작 당시 현실과의 관련	검열이라는 억압적 조치가 지닌 정치성

[진술문]

(가) ㉠의 관점에서 볼 때, 노비들을 다스릴 군사가 없다는 이자헌 대감의 말은 병기를 갖춘 노비들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불안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군.

(나) ㉡의 관점에서 볼 때, 한번 종이 되면 면천하기 어려워 자자손손 우마와 같이 팔고 팔린다는 노승의 말은, 노동을 착취당하고 인권을 유린당했던 1970년대 민중의 삶이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군.

(다) ㉢의 관점에서 볼 때, 나라와 왕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부사의 말과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똑같이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이자헌 대감의 말은,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당연시하는 비민주적 의식이 형상화된 것으로 볼 수 있군.

(라) ㉣의 관점에서 볼 때, 개국 이래 전례가 없다며 방랑을 반대한 판관과 풍속을 이유로 약속을 어기려는 이자헌 대감은 관객들에게 패배주의와 허무 의식을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이 작품이 검열된 주요한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군.

㉠ _____

㉡ _____



극·수필 128 예상문항 1번 (가천대)

출제 의도

• EBS 연계 방식: 문항연계. EBS 1번 오답 해설(①·④), 3번 ①·② 해설, 4번 〈보기〉의 '민중 기반·자유 억압하는 지배 세력'의 모순' 논리를 하나의 해설문으로 통합하여 재구성함. EBS 선지의 개념어(방랑, 자유, 치세의 근본, 배신)를 서술 흐름으로 옮기고, 지문 원문에 그대로 존재하는 핵심 개념어 '천적', '신의와 약속'을 빈칸으로 전환하였다.

• 측정 능력: 극 중 인물의 주장과 그 근거를 정확히 파악하고, 작품 해설문의 서술과 대사 원문을 일대일로 대응시켜 핵심 개념어를 추출하는 능력.

정답과 해설

정답: ① 천적 ② 신의와 약속

해설:

① 〈보기〉의 ' (①)에서 풀어 주어 자유민으로'라는 구절은 지문의 '방랑'을 되묻는 대사에 대한 노승의 답변과 여순까지 일치한다. 이처럼 조사(에서)가 그대로 남아 있는 빈칸은 원문 표현을 그대로 옮기라는 신호이므로, 대사 속 '천적'만 뽑아 쓴다.

② '자고로 다스리는 자는 ~ 지킬 줄 알아야'라는 〈보기〉표현이 원문 관용구와 동일하므로, 힘의 통치를 내세운 대감에게 노승이 반박하는 후반부 대사에서 같은 문구를 찾으면 된다. '신의'와 '약속'을 함께 쓰되, 조건에 따라 말미 조사 '을'은 제외한다.

채점기준

답안	배점
① 천적	5점
② 신의와 약속	5점



극·수필 128 예상문항 2번 (신한대)

출제 의도

• EBS 연계 방식: 문항연계. EBS 해제의 "노비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권위적 지배 체제와 기득권을 강화하려는 모순적인 지배층", 1번 문항 오답 해설 ③("노비를 방랑했을 경우..."), 4번 문항 오답 해설 ②("노비들이 ...우마와 같은 재산처럼 팔고 팔린다는 노승의 말"), 3번 ② 오답 해설 ⑤("힘이나 신분으로 다스릴 것이 아니라 인과 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노승의 제안")의 서술 논리를 재구조화하여 〈보기〉 요약문으로 전환하고, 해설에 등장한 핵심 개념어 '방랑·우마·인과 덕'을 빈칸 정답으로 직접 추출하였다.

• 측정 능력: 극 대사의 논쟁 구조에서 인물별 핵심 주장의 개념어를 정확히 포착하는 능력, 앞부분(방랑 제안)~중략 이후(통치관 대립)의 여러 단락을 종합하여 대립 구도를 재구성하는 능력, 창작 배경(1970년대 현실 비판)과 작품 내용을 연결하는 능력.

정답과 해설

정답: ① 방랑 ② 우마 ③ 인과 덕

해설:

① 〈보기〉의 "천적에서 풀어 주어 자유민으로 만드는"은 노승 대사의 부연 설명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이 설명 바로 앞 문장의 2음절 용어를 찾으면 '방랑'이다. '해방·면천'은 뜻이 통해도 오답이다.

② 〈보기〉의 "자자손손 종신토록 ~와 같이 재산처럼 팔고 팔리는"이 단서다. 중략 이후 노승이 노비 제도의 부당함을 따지는 긴 대사에서 이 구절을 찾으면, 매매되는 노비를 비유한 2음절 한자어 '우마'가 그대로 제시되어 있다.

③ 이자현의 "다스리는 근본은 힘시오"와 정면으로 대립하는 노승의 직전 대사를 확인한다. "힘으로 다스려선 안 되오"에 이어지는 통치 원리가 '인과 덕'이다. 조건이 공백 제외 3자이므로 어순을 바꾸거나 '인덕'으로 줄이면 안 된다.

채점기준

답안	배점
① 방랑	4점
② 우마	3점
③ 인과 덕	3점

극 · 수필 128 예상문항 3번 (한신대)

출제의도

• EBS 연계 방식: 문항연계 중심. EBS 4번 〈보기〉(1973년 서사극, 만적의 난 모티프, 1970년대 억압적 정치 현실 비판)의 감상 관점을 그대로 재활용하고, EBS 4번 ②·④번 선지의 핵심 판단 근거(“나라는 왕의 것이며 백성은 이를 위해 싸워야 한다”, ‘우마와 같은 재산처럼 팔고 팔린다’)와 3번 ⑥ 선지의 판단 근거(“다스리는 근본은 힘”)를 지문 원문 구절 역추적형으로 전환하였다. 5지선다의 적절성 판단 내용을 감상문 서술로 재맥락화한 뒤, 해당 근거 대사를 직접 찾아 쓰게 하는 한신대식 빈칸 설계이다.

• 측정 능력: ① 외적 증거(창작 배경·현실 비판 의도)를 인물의 구체적 발화와 대응시키는 능력, ② 유사한 화제를 다룬 여러 대사 가운데 조건(‘직접적 선언’, ‘한 낱말로 압축한 단언’)에 정확히 부합하는 구절을 변별하는 능력

정답과 해설

정답: ㉠ 첫 어절: 나라 / 마지막 어절: 것이오

㉡ 첫 어절: 그런데 / 마지막 어절: 않았소

㉢ 첫 어절: 대사 / 마지막 어절: 힘이오

해설:

㉠ 지문 근거(원문 인용) “나라가 누구의 것이오? 나라의 것이 아니라 백성의 것이오.”

㉡ 원문: “그런데 지금 보오, 우리 고려는 한번 종이 되면 좀처럼 면천하기 어려워 자자손손 종신토록 우마와 같이 재산처럼 팔고, 팔리는 천하 고금에 없는 제도가 되어 버리지 않았소?”

㉢ 원문: “대사, 다스리는 근본은 힘이오.” 첫 어절은 호칭을 포함한 ‘대사, 이다. 쉼표 뒤의 ‘다스리는’을 문장의 시작으로 삼지 않는다.

㉣ 역시 쉼표 앞의 ‘그런데’부터 시작한다. 문장 부호 생략은 허용한다.

채점기준

답안	배점
㉠ 첫 어절: 나라 / 마지막 어절: 것이오	3점
㉡ 첫 어절: 그런데 / 마지막 어절: 않았소	3점
㉢ 첫 어절: 대사 / 마지막 어절: 힘이오	4점

극 · 수필 128 예상문항 4번 (을지대)

출제의도

• EBS 연계 방식: 4번 〈보기〉의 창작 배경과 현실 비판 의도를 감상 관점으로 정리하고, 선지의 핵심 내용을 진술문 (가)~(라)로 재구성하였다. 2번 문항의 군사 부재와 노비 통제에 대한 우려는 (가)에 반영하였다. (라)는 극 중 지배층의 모순을 작품 검열의 원인으로 보는 오류를 판별하고, 두 인물을 작가의 비판 대상으로 설명하도록 구성하였다.

• 측정 능력: ① 외적 증거(창작 배경·수용사)와 작품 내적 형상화의 관계를 구별하는 능력 ② ‘검열 주체 ↔ 비판 대상’의 논리적 방향을 정확히 판별하는 비판적 독해력 ③ 오류를 판별한 뒤 그것을 원문·〈보기〉에 부합하는 표현으로 직접 재구성하는 서술 능력.

정답과 해설

정답: ㉠ (라) ㉡ “이 작품이 검열된 주요한 원인” → “작품이 고발하고자 한 지배 세력의 모순을 보여 주는 인물”

해설:

① 검열 주체는 군부 독재 정권이다. 패배주의와 허무 의식의 확산은 검열의 명분이었으며, 실제로는 억압적 현실을 비판하는 공연을 제한하려는 조치였다. 판관·이자현은 작가가 고발하는 지배층의 모순을 보여 주는 인물이다.

② 〈보기〉는 이 작품이 “지배 세력의 모순과 비민주적 사고를 비판”했다고 했다. 따라서 두 인물의 성격은 ‘검열 원인’이 아니라 작가가 고발하려 한 지배층의 모순이다. 밑줄을 “작품이 고발하고자 한 지배 세력의 모순을 보여 주는 인물”로, 뒤 문장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고친다.

채점기준

답안	배점
㉠ (라)	3점
㉡ 밑줄 부분을 ‘작품이 고발·비판하려는 지배 세력(지배 계층)의 모순을 보여 주는 인물’의 취지로 수정함 — 완전한 어구·문장 형태로 제시하면 7점 / ‘검열의 원인이 아니라 비판의 대상’이라는 방향만 언급하면 4점 / 검열의 주체·성격만 서술하고 수정 표현을 제시하지 않으면 2점	7점



05 극·수필

NOTE

129



김동리 원작, 최금동·김강운 각색, 「역마」

장면 1 (2)____의 갑작스러운 이별

- 여수로 떠나려는 (3)____과 (2)____ ↔ 소식을 듣고 충격으로 표정이 굳어진 (1)____
- 지리산에서 고향 친구의 아들을 만난 (3)동운이 형편이 풀릴 것을 기대해 여수로 함께 향함
- (1)____는 쇠뿔치로 얻어맞은 듯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듯 멍하니 (2)____만 쳐다봄

장면 2 천륜의 비극 인지와 아픈 과거 회상

- (1)____가 이별 후 알아누워 굶어 죽기로 결심함 → (4)____가 (2)____은 자신의 (5)____이고, (3)____은 자신의 (6)____라는 비밀을 털어놓음
- 강변에서 (2)____과 비밀리에 만나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장가들겠다고 약속했던 과거를 회상함
- 다정했던 회상 속 모습 ↔ 평평 쏟아지는 눈과 공공 얼어붙은 강물 속에서 홀로 눈물을 흘리는 차가운 현실

장면 3 (7)_____의 운명을 수용하는 결심

- 타지로 떠나거나 정착해 살라는 (4)_____의 권유 ↔ 고개를 흔들며 모두 거절하는 (1)_____
- 봄이 오면 (10)_____ 하나를 맞춰 달라고 요구함 → 운명을 거부하는 대신 유랑하는 (7)_____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함
- (1)_____의 엿판 요청에 놀람 → (4)_____가 한숨을 쉬어 말하며 아들의 뜻을 받아들임

장면 4 (9)_____을 선택하며 운명 속으로 떠남

- 봄이 오자 (1)_____는 명주 수건을 머리에 동여매고 새 (10)_____을 걸친 채 길을 나섬
- (2)_____이 떠나간 (8)_____ (사랑에 대한 미련) ↔ 발길을 돌려 들어선 (9)_____ (운명에 대한 순응)
- 절에 가두는 인위적인 방법으로는 풀 수 없었던 (7)_____ → 구름 위를 걷듯 가벼운 발걸음으로 유랑을 시작함

NOTE

CONCEPTION 개념

(1) 성기 (2) 계연 (3) 동운 (4) 옥화 (5) 이복동생 (6) 친부 (7) 역마살 (8) 구례 길 (9) 하동 길 (10) 엿판



극·수필 129 예상문항 1번 (가천대)

유형

N-5



신유형: 조건부 완성

[기출 동형] 26가천대42

하

중

상

〈보기〉의 ①~③에 들어갈 말을 제시문에서 찾아 〈조건〉에 맞게 쓰시오.

시나리오 「역마」는 회상 장면과 음향 기법을 활용하여 인물의 심리와 사건의 개연성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한다. S#148에서는 화면을 바꾸지 않은 채 강의 상태가 변화하는 모습과 (E) 기법을 겹쳐 놓아 현재에서 과거로의 시간 전환을 드러낸다. 이때 계연은 성기에게 자신을 만나러 오지 않는 이유를 따져 묻고, 성기는 「(①)」라고 답하며 어머니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음을 밝힌다. 이어지는 S#149의 회상은 앞뒤 장면과 구분되는 독립된 장면으로 제시되어, 이별 후 슬픔에 잠긴 현재의 성기와 대비되는 설렘의 심리를 보여 준다. 한편 S#153에서 (E) 기법으로 제시되는 해초의 말은, 성기의 역마살이 절에 말긴다고 풀리는 것이 아니라 성기가 (②)이 남달리 많은 데서 비롯된 것임을 알려 준다. 이는 성기가 결국 스스로 택한 떠돌이의 삶으로 나아가는 상황의 개연성을 높이며, S#154에서 성기의 발걸음이 (③)(으)로 묘사되는 장면과 이어져, 운명을 수용한 인물의 흥가분한 내면을 형상화한다.

〈조건〉

- ①은 제시문에서 해당하는 성기의 대사 한 문장을 찾아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순서대로 쓸 것.
- ②는 제시문에 쓰인 표현을 그대로 1자로 쓸 것.
- ③은 공백 제외 5자의 2어절 구절로 쓸 것.

① 첫 어절: _____, 마지막 어절: _____

② _____

③ _____



극·수필 129 예상문항 2번 (국민대)

유형

G-1



서술형 소문항

[기출 동형] 26국민대16

하

중

상

다음은 시나리오 「역마」를 감상한 학생의 탐구 활동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물음에 답하시오.

「역마」의 성기는 타고난 (①)을/를 없애려는 어머니 옥화의 바람에 따라 절에서 지내지만, 계연과의 사랑에 실패한 뒤 결국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떠돌이의 삶을 스스로 선택한다. 이러한 성기의 선택은 (②)을/를 맞춰 달라는 요청과, 삼거리에서 계연이 떠난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발걸음을 돌리는 행동을 통해 구체화된다.

[소문항 1] 〈보기〉의 ①, ②에 들어갈 말을 윗글에서 찾아 각각 쓰시오. (① 3자, ② 2자)

① _____

② _____

[소문항 2] ㉠에서 성기가 옥화의 말은 듣지 못한 듯 계연만 쳐다보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띄어쓰기 포함 50자 내외)

③ _____

[소문항 3] S#148~149(회상)와 S#150(현실)의 강의 모습을 근거로, 성기의 심리를 대비하여 서술하시오. (띄어쓰기 포함 90자 내외)

④ _____

극·수필 129 예상문항 3번 (상명대)

유형 A	표현·구절 찾기
	[기출 동형] 26상명대5

다음은 윗글을 읽고 정리한 감상 요약문이다. <보기>의 ①, ②에 들어갈 말을 윗글에서 찾아 그대로 쓰시오.

시나리오 「역마」의 후반부는 주인공 성기가 운명을 거부하는 삶에서 벗어나 이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보여 준다. 계연과 이별한 뒤 알아누워 굶어 죽을 결심을 했던 성기는, 얼어붙은 강을 바라보며 계연과의 추억을 회상한 후 눈물을 닦고 돌아선다. 이후 미음을 떠먹으며 생의 의지를 회복한 성기는, '강원도 쪽으로 가 보고 싶냐'는 물음과 '여기서 장가들어 나랑 같이 살겠냐'는 옥화의 물음에 모두 고개를 흔든 뒤, 봄이 오면 (①)을 하나 맞춰 달라고 말한다. 이는 어머니의 바람대로 역마살을 풀고 정착하는 삶이 아니라, 떠돌이 옛장수로 살아가겠다는 성기 자신의 선택을 드러낸 것이다. 그리하여 봄날 삼거리에서 이른 성기는 계연이 떠나간 구레 길 쪽을 한번 바라보고는 발길을 돌려 (②)로 들어서며,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순리로 받아들이는 새로운 출발에 나선다.

- ① _____
② _____

※ ②는 말미 조사를 제외하여 쓸 것.

극·수필 129 예상문항 4번 (삼육대)

유형 N-7	신유형: 문장 첫·끝 어절
	[기출 동형] 26삼육대7

<보기>의 ㉠~㉣에 해당하는 한 문장을 각각 찾아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쓰시오. 문장 부호를 포함하여 원문 그대로 쓸 것.

시나리오 「역마」의 회상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제시되며, 인물의 내면 상태 및 사건 전개와 개연성과 긴밀히 연관된다.

㉠ [회상의 시작] 강변에 나온 성기에게 계연과 마지막으로 만나던 일이 회상된다고 직접 알리는 문장. 강물이 풀리는 모습과 (E) 대사가 이어지기 직전의 문장을 찾는다.

㉡ [내면 상태의 전환] 회상에서 깨어난 인물이 이별의 슬픔을 스스로 정리하고 삶의 의지를 회복하는 계기가 됨을 보여 주는, 인물의 행동을 지시하는 문장.

㉢ [개연성의 확보] 주인공이 절에서 지냈음에도 결국 자신의 운명을 좇아 길을 떠나게 되는 결말의 개연성을 높이는, 회상 속 인물(혜초)의 대사 중 첫 번째 문장.

- ㉠ 첫 어절: _____, 마지막 어절: _____
㉡ 첫 어절: _____, 마지막 어절: _____
㉢ 첫 어절: _____, 마지막 어절: _____



극·수필 129 예상문항 1번 (가천대)

출제 의도

• EBS 연계 방식: 문항연계 — EBS 3번 문항의 <보기>(화상의 제시 방식, 시간 전환 장치, 음향 기법, 개연성 강화 기능)와 선지 ①·②·⑤의 판단 논리를 하나의 해설문으로 통합 재구성함. EBS 1번 오답 해설 ①의 근거 대사(성기가 절에만 있는 이유)를 구절 추출형 빈칸으로, 선지 ⑤의 '해초의 말'과 '가벼운 발길'을 개념어 추출형 빈칸으로 전환하였다.

• 측정 능력: 시나리오의 장면 구성(S#) 및 (E) 기법이 수행하는 시간 전환·심리 대비 기능을 파악하는 능력, 화상 장면의 대사와 결말 장면의 서술을 인과적으로 연결하여 인물의 운명 수용 과정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능력.

정답과 해설

정답: ① 첫 어절: 어무니가 / 마지막 어절: 같아서. ② 꿈 ③ 가벼운 발길

해설:

① <보기>의 '만나러 오지 않는 이유', '어머니의 시선을 의식'이 단서다. S#148의 (E) 대사 중 계연의 질문에 대한 성기의 답을 찾으면 "어무니가 눈치 보는 것 같아서."이다. 조건이 첫·마지막 어절이므로 문장 전체가 아닌 '어무니가', '같아서'만 순서대로 쓴다.

② <보기>가 '절에 말긴다고 풀리는 것이 아니라 ~이 남달리 많은 데서 비롯'이라 했으므로, S#153 해초의 (E) 대사에서 원인으로 지목된 말을 찾는다. "가슴에 남달리 꿈이 많아서 그런 거니"에서 빈칸 뒤 '이 남달리 많은'과 호응하는 핵심 명사는 '꿈'이다. 유사어 '역마살'은 결과이므로 오답.

③ S#154의 '그 구름 위를 걸어가듯 가벼운 발길'에서 걸음걸이를 묘사한 '가벼운 발길'을 찾는다. 두 어절이며 공백을 제외하면 5자이다. '가볍다'처럼 어형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쓴다.

채점기준

답안	배점
① 첫 어절: 어무니가 / 마지막 어절: 같아서.	3점
② 꿈	3점
③ 가벼운 발길	4점



극·수필 129 예상문항 2번 (국민대)

출제 의도

• EBS 연계 방식: 문항 연계. (1) EBS 2번 정답 선지(㉠ 오답 근거인 "옥화와 동운의 결정으로 갑작스럽게 계연이 떠나게 된 상황 때문"이라는 인과 논리)를 서술형 정답의 골격으로 전환하여 소문항 2로 재구성함.

• 측정 능력: 극 갈래의 지시문·음향(E) 기법과 배경 이미지가 인물 심리를 형상화하는 방식을 파악하는 능력.

정답과 해설

정답: ① 역마살 ② 옛판 ③ 옥화와 동운의 결정으로 계연이 갑작스럽게 떠나게 된 상황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④ S#148~149의 풀리는 강물은 계연과 사랑을 나누던 성기의 설렘과 기쁨을, S#150의 얼어붙은 강물은 이별 후 성기가 느끼는 슬픔을 드러낸다.

해설:

① 성기를 절에 말긴 이유와 연결된 3자 개념어다. 해초의 대사 "절에 말긴다고 역마살이 풀리는 건 아닙니다"에서 '역마살'을 뽑는다.

② 결말에서 성기가 "나 옛판 하나만 맞춰 주."라며 요구한 사물로, 떠돌이 삶을 스스로 택했음을 보여 주는 '옛판'이다.

③ 심리의 원인을 '무엇에 대한 반응인가'로 좁혀야 한다. 직전 옥화의 말은 "계연이가 시방 떠난단다"이고, 지시문은 "쇠뿔치로 얼어맞은 듯 멍하니 서 있는"이다. 즉 동운에 대한 의혹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에 받은 충격 때문임을 인과로 서술한다.

④ S#148에서 얼어붙었던 강물이 풀리며 화상으로 전환되고, S#149에서 성기와 계연은 사랑을 확인한다. S#150에서는 강물이 얼어붙어 있고 성기는 눈물을 문지른다. 풀리는 강물과 사랑의 설렘·기쁨, 얼어붙은 강물과 이별의 슬픔을 대비한다.

채점기준

답안	배점
① 역마살 ② 옛판	2점
③ '갑작스러운 계연의 떠남(이별 통보)'을 원인으로 제시함(2점) + '충격·경황 없음(쇠뿔치로 얼어맞은 듯한 상태)'을 결과로 서술함(2점)	4점
④ '풀린 강물(화상)'과 '얼어붙은 강물(현실)'의 대비를 근거로 제시함(2점) + '설렘·기쁨'과 '이별의 슬픔'이라는 심리 대비를 서술함(2점)	4점



극·수필 129 예상문항 3번 (상명대)

출제의도

• EBS 연계 방식: 문항연계 + 지문연계. EBS 1번 ④·⑤ 선지와 2번 ㉠·㉡ 조언, 3번 ⑤ 선지의 판단 근거(“옛목판”을 떼고 ‘계연이가 떠나간 구레길 쪽’이 아닌 ‘하동 길’로 향함, 미움을 먹고 생의 의지를 회복함)를 그대로 감상 요약문으로 재구성한 뒤, 정오 판단의 핵심어인 소품·방향어를 빈칸 기입형으로 전환하였다.

• 측정 능력: 시나리오의 장면 전개(S#148~S#154)를 순차적으로 파악하여 인물의 심리 변화와 선택이 구체적 소품·공간(옛판, 하동 길)으로 형상화되는 방식을 확인하는 능력, 그리고 주제(운명의 수용과 생의 의지 회복)를 지문 원문 표현으로 정확히 뒷받침하는 능력.

정답과 해설

정답: ① 옛판 ② 하동 길

해설:

- ① 빈칸 앞 ‘봄이 오면’과 뒤 ‘떠돌이 옛장수로 살겠다는 선택’이 단서다. 옥화의 두 제안(강원도행·정착 결혼)을 모두 거부한 직후 성기가 요구한 물건을 찾으면 되므로, S#151 대사 “나 옛판 하나만 맞춰 주”에서 ‘옛판’을 그대로 옮긴다.
- ② 계연이 떠난 구레 길과 다른 길을 찾는다. S#153의 ‘발길을 돌려 하동 길로 들어선다.’에서 말미 조사 ‘로’를 제외한 ‘하동 길’을 쓴다. 삼거리의 두 길이 서로 정반대 방향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채점기준

답안	배점
① 옛판	5점
② 하동 길	5점



극·수필 129 예상문항 4번 (삼육대)

출제의도

• EBS 연계 방식: 문항연계. EBS 3번 <보기>의 이론 요소(① 시간의 전환을 드러내는 장치와 함께 하나의 장면으로 제시 ② 장면 유지·음향 기법만으로 제시 ③ 회상 내용과 인물의 현재 내면 상태의 관련성 ④ 과거·현재 사건의 인과성을 통한 개연성 확보)를 ㉠·㉡·㉢ 세 가지 세부 유형으로 재분류·재명명하여 대학 <보기>로 재구성하였다.

• 측정 능력: 시나리오의 장면 전환 장치(지시문·(E) 기법)와 인물의 심리 변화 및 결말의 개연성을 연결하여 이해하는 능력, 이론적 진술에 대응하는 원문의 정확한 범위를 확정하고 표기하는 능력.

정답과 해설

정답: ㉠ 첫 어절: 거기서 / 마지막 어절: 회상된다.

㉡ 첫 어절: 성기, / 마지막 어절: 돌아선다.

㉢ 첫 어절: 절에 / 마지막 어절: 아닙니다.

해설:

㉠ 원문은 ‘거기서 계연이와 마지막으로 만나던 일이 회상된다.’이다. 마침표까지가 온전한 한 문장이다. 바로 뒤의 ‘얼어붙었던 강물이 서서히 풀리면서’는 연결어미로 끝나는 지시문 조각이므로 이 문항의 답으로 삼지 않는다.

㉡ ‘회상에서 깨어난 뒤’와 ‘행동을 지시하는 문장’이라는 두 조건으로 걸러라. S#150의 ‘회상에서 깨어나는 성기.’는 상태 제시일 뿐이고, ‘핑핑 쏟아지는 눈.’은 배경이다. 눈물을 문지르고 ‘돌아선다’는 동작이야말로 슬픔을 정리하고 길을 나설 의지를 드러낸다.

㉢ ‘절에 맡겼는데도 왜 떠나는가’라는 결말의 인과를 설명해 주는 대사를 찾는다. S#153 해초의 말 중 첫 문장이 절에 맡겨도 역마살은 풀리지 않는다고 못 박아, 절 생활이 운명을 막지 못함을 미리 알린다. 조건이 ‘첫 번째 문장’이므로 뒤 문장은 제외한다.

채점기준

답안	배점
㉠ 첫 어절: 거기서 / 마지막 어절: 회상된다.	3점
㉡ 첫 어절: 성기, / 마지막 어절: 돌아선다.	3점
㉢ 첫 어절: 절에 / 마지막 어절: 아닙니다.	4점



05 극·수필

NOTE

130



류장하, 「꽃 피는 봄이 오면」

장면 1 (1)___와 (2)___의 쓸쓸한 만남과 (13)___의 흔적

- 늦은 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헤어진 (1)___와 (2)___가 재회함
- (1)___는 우울한 노랫가락을 흥얼거리고 (2)___는 이를 제지함
- (1)___는 (2)___가 준 (3)___를 팔아 술을 마셨다고 고백함
- 나를 버린 남자((2)___) ↔ 나를 좋다는 남자를 비교하기 위해 전화했다고 함
- 순수하게 (4)___만 고집하는 (2)___ ↔ (5)___를 병행하며 현실과 타협하길 원했던 (1)___
- 세월의 흔적으로 늙어버린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며 쓸쓸해함
- 외로워 보이는 (1)___를 남겨두고 돌아서는 (2)___ ↔ 낙엽을 떨군 채 (6)___에 의지해 버티는 나무

장면 2 (2)___의 도계행과 (8)___ 지도에서의 난관

- (1)___의 (7)___ 소식 → (2)___가 탄광촌 도계 중학교 (8)___ 임시 지도 교사로 도계에 내려옴
- 부원들의 뜨거운 (4)___ 열정 ↔ 열악한 환경 및 가정 형편으로 인한 연습의 어려움
- (10)___인 (9)___ 아버지의 극심한 반대로 (9)___이 (8)___ 활동을 중단하게 됨
- (9)___ 아버지를 찾아가 설득을 시도함 → 거절당하고 실패로 돌아감

장면 3 눈 내리는 거리에서 (9)___과의 대화를 통한 (2)___의 감정 환기

- 눈 쌓인 거리에서 (11)___를 한 (9)___과 (2)___가 대화를 나누며 걸어감
- (9)___ 아버지가 과거 암스트롱의 곡을 독보적으로 연주하던 유명 음악가였다고 치켜세움
- (9)___ 아버지가 (9)___을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반대하는 것임을 깨달은 (2)___
- (4)___으로는 가난하여 경제적 (12)___(선물, 맛있는 음식 등)을 지기 힘든 현실적 한계를 털어놓음
- 가난한 (10)___ 집안 형편 ↔ 돈이 많이 들고 불평하는 여자친구와의 갈등 → (9)___은 수정과 (13)___함
- 조금 힘들다고 끝까지 (12)___지지 않고 쉽게 헤어지는 (9)___의 모습 → 자신의 아픈 (13)___을 대입하며 감정적으로 흥분하는 (2)___
- (14)___를 강조하며 흥분하는 (2)___ ↔ 왜 그렇게 흥분하냐고 묻는 (9)___의 반응에 당황함

NOTE

CONCEPTION 개념

(1) 연희 (2) 현우 (3) 목걸이 (4) 음악 (5) 학원 교사 (6) 링거 (7) 결혼 (8) 관악부 (9) 용석 (10) 광부 (11) 안대
(12) 책임 (13) 이별 (14) 의리



극·수필 130 예상문항 1번 (가천대)

유형 K



복합형

[기출 동형] 26가천대6

하 중 상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꽃 피는 봄이 오면」은 시각적 요소의 계획적 배치, 즉 미장센을 통해 인물의 심리와 관계, 처지를 형상화한다. S#5에서 연희는 노랫가락을 흥얼대는데, 그는 (①). 이는 나아가지도 헤어지지도 못한 채 제자리를 맴돌며 이어지는 현우와 연희의 관계를 떠올리게 하는, 배우의 연기를 중심으로 한 미장센이다. 또 연희가 바라보는 나무가 낙엽을 다 떨군 채 링거를 매달고 힘겹게 버티고 있는 모습으로 제시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음악에 대한 열정만으로 현실을 지탱하는 현우의 상황을 상징한다. 한편 S#74에서 용석이 하고 있는 안대는 용석의 왜곡된 현실 인식이 아니라, 음악을 하려는 그에게 (②)이/가 생겼음을 나타내는 소품이다.

한편 두 장면은 인물 관계의 유사성과 상반성을 통해 주제를 심화한다. 현우는 S#5에서 음악을 위해 현실과 타협하지 않았으나, S#74에서는 "케니 지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라며 용석에게 현실을 위해 음악을 포기하라고 설득하는 상반된 태도를 보인다. 또한 현우가 수정과 헤어지려는 용석에게 지나치게 흥분하는 것은, 연희를 (③) 자신의 모습이 용석에게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소문항1]

위 <보기>의 빈칸 ①, ②에 들어갈 내용을 조건에 맞게 쓰시오.

<조건>

- ① : 지문의 문장 ㉠ 전체에서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순서대로 쓰시오. 쉼표나 연결어미에서 끊지 마시오.
- ② : EBS 해설의 판단에 따라 들어갈 말을 2음절로 쓰시오.

① 첫 어절: _____, 마지막 어절: _____

② _____

[소문항2]

위 <보기>의 빈칸 ③에 들어갈 말을, 지문에 나타난 현우의 태도를 근거로 '~지 못한'의 형태를 포함하여 10자 이내로 쓰시오.

③ _____



극·수필 130 예상문항 2번 (강남대)

유형 A



시어·구절 찾기

[기출 동형] 26강남대1

하 중 상

<보기>는 윗글에 나타난 시각적 소품의 상징적 의미를 정리한 것이다. ①, ②에 해당하는 소품을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

장면	소품	소품이 놓인 상황	상징적 의미
S#5	(①)	벤치 옆의 나무가 낙엽을 다 떨군 채 이것을 하나 매달고 힘겹게 버티고 있음	사랑하는 사람마저 떠나보내고 오직 음악에 대한 열정만으로 현실을 지탱하고 있는 현우의 상황을 떠올리게 함
S#74	(②)	학교 밖에서 현우를 기다리는 용석이 이것을 한쪽 눈에 하고 있음	한쪽 눈을 가려 생활에 불편을 겪는 모습을 통해, 음악을 하려는 용석에게 장애가 생겼음을 나타냄

① _____

② _____

극·수필 130 예상문항 3번 (상명대)

유형 A	시어·구절 찾기
[기출 동형] 26상명대5	하 중 상

다음은 윗글을 읽고 정리한 작품 감상 노트이다.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①, ②에 들어갈 말을 지문에서 찾아 그대로 쓰시오.

인물의 말	의미
현우는 용석에게 아버지가 옛날에는 아주 (①)이라고 말한다.	아버지를 치켜세워 줌으로써, 현실적 선택을 권하는 아버지의 입장을 용석이 이해하도록 돕는 것
용석은 수정에게 자신은 재벌 집 자식이 아니라 (②)라고 말한다.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처지에 대한 인식(자부심의 표현은 아님)

- ① _____
 ② _____

※ ①, ②는 말미의 서술격 어미를 제외한 명사구로 쓰시오.

극·수필 130 예상문항 4번 (수원대)

유형 C	화자·인물 분류표
[기출 동형] 26수원대8	하 중 상

다음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에 나타난 시각적 요소를 정리한 표의 ①~③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 (②, ③은 두 글자로 쓸 것)

미장센(Mise-en-Scène)은 연극이나 영화 등에서 무대 위나 카메라 프레임 안의 모든 시각적 요소를 계획하고 배치하는 행위나 그 결과물 자체를 뜻한다. 미장센은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는데, 배우의 의상이나 분장, 연기와 동선, 시·공간적 배경이나 소품의 종류와 배치, 카메라나 조명을 활용한 표현 등이 그것이다. 감독이나 연출자는 이를 활용하여 작품의 분위기나 인물의 심리와 인물 사이의 관계, 사건의 전개 방향이나 주제, 상징성 등을 표현하기도 한다.

미장센 요소	작품 속 시각적 요소	표현 효과
배우의 연기	슬픈 노랫가락을 흥얼대던 연희가 (①)	단절도 회복도 되지 않은 현우와 연희의 관계
소품의 종류	낙엽을 다 떨어진 나무에 매달린 (②)	음악 하나로 현실을 지탱하는 현우의 상황
소품의 배치	용석이 한쪽 눈에 하고 있는 (③)	음악을 하려는 용석에게 생긴 장애

-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 ①은 "자꾸만"부터 문장 끝까지 그대로 쓰시오. 마침표는 생략 가능하다.



극·수필 130 예상문항 1번 (가천대)

출제 의도

• EBS 연계 방식: 문항연계. EBS 4번 문항의 〈보기〉(미장센 개념)와 선지 ①·④의 판단 논리, 그리고 3번 문항 선지 ②의 인물 관계 대비 논리를 하나의 해설문 〈보기〉로 통합 재구성하였다. ①은 시각적 지시문 ① 전체의 첫·끝 어절을 찾게 하고, ②는 안대의 의미를 EBS 해설에 따라 쓰게 하였다. ③은 두 장면의 관계를 종합하여 현우의 자책을 추론하고 조건에 맞게 표현하는 문항이다.

• 측정 능력: ① 시각적 지시문(미장센)이 인물 심리·관계를 어떻게 상징하는지 파악하는 극 갈래 독해력, ② 두 장면(S#5/S#74)의 인물 관계를 대응시켜 현우의 자기 투영을 읽어내는 종합적 감상 능력, ③ 지문 원문 구절을 어절 단위로 정확히 지목하는 정밀 독해력.

정답과 해설

정답: ① 첫 어절: 다음 / 마지막 어절: 있다. ② 장애 ③ 책임지지 못한 (또는 '불잡지 못한')

해설:

① 빈칸 앞 주어가 '그는(연희)', 뒤는 마침표이므로 '~하고 있다'로 끝나는 지시문을 찾는다. 뒷문장 단서 '제자리를 맴돌며'와 대응하는 말은 '같은 곳을 반복'이다. 따라서 ㉠ 전체가 답이며, 첫 어절 '다음', 마지막 어절 '있다'를 쓴다.

② 안대를 '현실을 외면하는 태도'로 읽으면 오답이다. 〈보기〉가 '음악을 하려는 그에게 ~이 생겼음'이라 했으므로, 눈을 다쳐 연주·생활에 불편이 생긴 상황을 가리킨다. 즉 음악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뜻하는 2음절 한자어 '장애'가 답이다.

③ 현우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용석에게 흥분한다. 연희를 불잡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용석에게 겹쳐 보는 것이다. "책임지지 못한"(공백 제외 6자) 또는 "불잡지 못한"으로 쓸 수 있다.

채점기준

답안	배점
① 첫 어절: 다음 / 마지막 어절: 있다.	3점
② 장애	3점
③ 책임지지 못한 (또는 '불잡지 못한')	4점



극·수필 130 예상문항 2번 (강남대)

출제 의도

• EBS 연계 방식: 문항연계 — EBS 4번 문항(미장센 관련 〈보기〉 문항)의 선지 ③(‘소품의 종류를 활용한 미장센 … 링거 하나만으로 버티고 있다는 점에서 … 음악 하나만으로 버티고 있는 현우의 상황’)과 선지 ④·정답 해설(‘안대 … 음악을 하고자 하는 용석에게 장애가 생겼음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의 핵심 서술을 출제자가 새로 작성한 정리표의 '상징적 의미' 항목으로 재구성하고, 판단의 결정적 개념어인 소품명(링거, 안대)을 빈칸으로 비워 지문에서 직접 추출하도록 하는 '선지→정답 역변환' 구조를 적용하였다.

• 측정 능력: 시나리오의 지시문(장면 지시·소품 배치)에 담긴 시각적 형상화 장치를 파악하고, 제시된 상징적 의미와 지문 원문의 구체적 소재를 정확히 대응시키는 능력.

정답과 해설

정답: ① 링거 ② 안대

해설:

① 〈보기〉의 '낙엽을 다 떨군 채 ~ 하나 매달고 힘겹게 버티고'는 S#5 지시문과 거의 같다. 나무에 매달린 사물을 찾으면 '링거'다. '하나만으로 버틴다'가 음악 하나로 버티는 현우와 겹친다. ② '학교 밖에서 현우를 기다리는 용석'으로 S#74 첫 지시문을 찾는다. 한쪽 눈에 착용한 소품은 '안대'이며, 시력 손상=음악의 장애라는 의미와 연결된다. 원문 표기 그대로 쓴다.

채점기준

답안	배점
① 링거	5점
② 안대	5점



극·수필 130 예상문항 3번 (상명대)

출제의도

• EBS 연계 방식: 문항연계. EBS 1번 문항 ⑤번 선지의 판단 근거인 '광부 집 자식'(자부심이 아니라 경제적 처지에 대한 인식)과, 2번 문항 정답 ①번 선지의 핵심 근거인 '아주 유명하셨던 분'(용석 아버지를 치켜세우는 말하기 방식)을 그대로 빈칸 정답으로 추출하였다. EBS의 '적절하지 않은 선지 고르기'를 '지문 원문 표현 기입'으로 전환한 형식이다.

• 측정 능력: 극(시나리오)에서 대사를 근거로 인물의 말하기 방식(상대 치켜세우기)과 자기 인식(처지 확인 vs 자부심)을 구별해 파악하고, 그 근거가 되는 핵심 구절을 원문에서 정확히 찾아 쓰는 능력.

정답과 해설

정답: ① 유명하셨던 분 ② 광부 집 자식

해설:

① 현우는 용석 아버지를 "유명하셨던 분"이라고 치켜세워 아버지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실제 유명 연주자였다는 사실 확인은 아니다. "아주"는 빈칸 앞에 있으므로 제외하고 "유명하셨던 분"만 쓴다.

② '재벌 집 자식이 아니라'라는 대비가 그대로 제시된다. 수정이 사 달라고 조를 때 용석이 짜증 내는 대사에서 '재벌 집'과 짝을 이루는 말을 찾아, '광부 집 자식'을 해석어로 바꾸지 말고 원문대로 쓴다.

채점기준

답안	배점
① 유명하셨던 분	5점
② 광부 집 자식	5점



극·수필 130 예상문항 4번 (수원대)

출제의도

• EBS 연계 방식: 문항연계(4번) — EBS 4번의 <보기>(미장센 개념)를 이론적 틀로 그대로 유지하고, 선지 ①·③·④에서 '해석·분석된 표현 효과'는 조건으로 고정한 뒤, 그 근거가 되는 ①·③·④의 구체적 시각 요소를 지문 원문에서 찾아 쓰게 하는 '선지→빈칸' 역설계를 적용하였다.

• 측정 능력: 시나리오의 지시문에 배치된 소품·배경·연기 요소가 인물의 심리와 관계, 상황의 상징으로 기능하는 방식을 파악하는 능력, 제시된 해석(표현 효과)으로부터 그 근거가 되는 텍스트 구절을 역추적하여 원문 표현으로 정확히 옮기는 능력.

정답과 해설

정답: ① 자꾸만 같은 곳을 반복하고 있다

② 링거 ③ 안대

해설:

① 표현 효과 '단절도 회복도 되지 않은 관계'가 힌트다. '끝나지 않고 제자리를 도는 상태'를 보여 주는 연기는 노래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연희의 대사가 아니라 흥얼거림을 묘사한 지시문 ㉠에서 '자꾸만 같은 곳을 반복하고 있다'를 그대로 옮겨 쓴다.

② 낙엽을 다 떨곤 나무가 링거를 매달고 버티는 모습은 음악만으로 현실을 지탱하는 현우를 떠올리게 한다. 두 글자의 원문 소품명 "링거"를 쓴다. "링거액"이나 "링거병"은 조건에 맞지 않는다.

③ '용석에게 생긴 장애'라는 효과와 '한쪽 눈'이라는 단서를 연결한다. 시력을 가려 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는 소품이어야 하므로, S#74에서 현우를 기다리는 용석의 모습을 묘사한 ㉡의 '안대'가 답이다. '눈가리개' 같은 유사어가 아니라 원문 단어로 써야 한다.

채점기준

답안	배점
① 자꾸만 같은 곳을 반복하고 있다 (마침표 생략 가능. 어미를 바꾼 "반복함"이나 끝을 지른 답은 불인정.)	4점
② 링거	3점
③ 안대	3점



05 극·수필

NOTE

131



김금원, 『호동서락기』

처음 남녀와 신분의 한계를 극복하고 유람을 결심하여 길을 떠남

- 하늘이 준 성품과 재주를 지님 ↔ 여자이자 한미한 가문이라는 처지 때문에 (2)___에 갇혀 무명으로 살아 가야 하는 현실
- 규방의 법도를 지키기보다 스스로의 뜻을 행해 넓은 세상의 (1)___를 유람하기로 결심함
- 부모님께 여러 번 간청함 → 마침내 유람 허락을 받아냄
- 부모님의 허락 → 새장을 벗어난 매와 재갈을 벗은 천리마 같은 해방감을 느끼며 (3)___으로 갈아입음
- 집을 꾸러 네 고을을 향해 첫 유람길을 떠남

중간1 산수 유람 후 더 변화한 도읍인 한양으로 향함

- (1)___와 바다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두루 감상함 → 더 수려하고 변화한 곳을 보고 싶어 함
- 한양을 목적지로 정해 이동함
- 한양으로 가는 길에 멀리 도읍을 바라보며 자연 속을 (4)___처럼 노니는 유람의 감회와 걷히기를 바라 는 (5)___에 관한 시를 지음

중간2 제왕의 도읍 한양의 웅장한 형세와 변화한 도시 풍경에 감탄함

- 용이 서리고 호랑이가 웅크린 듯한 웅장한 산세와 한강을 두른 한양의 지리적 풍경을 목격함
- 고구려 도읍((6)____·(7)____의 군대에 침략 고초를 겪음) ↔ 한양(천연 요새이자 비옥하고 풍부한 땅 임)
- 남산에서 대궐과 대저택, 성안의 화려했던 담장 등의 상서롭고 아름다운 기운을 조망함
- 변화가에서 (8)_____이 달리고 젊은이들이 풍류를 즐기는 태평성대의 기상을 느낌
- 시골 출신으로서 지냈던 좁은 안목을 자각함 → 도성을 두루 유람하며 가슴이 탁 트이는 시원함을 경험함

NOTE

중간3 세검정과 탕춘대를 유람하며 유적의 역사적 의미와 선왕의 원대한 뜻을 되새김

- 세검정의 맑고 빠른 시냇물과 정교하고 깔끔하게 설계된 정자 경치를 감상함
- 옛 장수가 승전 후 칼을 씻었다는 역사적 유래와 현판에 새겨진 화려한 임금의 글씨를 확인함
- 북한산의 관문이자 험준하고 (9)_____가 견고한 탕춘대를 찾음
- 탕춘대의 엄밀한 군사적 배치 → 후세를 위해 국방을 다진 (10)_____을 우러러 짐작함

중간4 삼계동 별장의 그윽한 자연 속에 몰입하여 번뇌를 씻는 시를 지음

- 김 상서의 별장지인 삼계동의 그윽하고 정결한 정취에 감탄함
- 맑은 시내, 흰 돌다리, 눈처럼 떨어진 꽃잎이 가득한 백석실의 깊고 한적한 분위기를 즐김
- 수각 바위에 새겨진 '천수도' (11)_____ → (12)_____ 속 현도관의 도교적 정취를 떠올림
-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 졸졸 흐르는 물과 새 지저귀 등 그림으로도 그리기 어려울 만큼 뛰어난 풍경을 만끽함
- (13)_____을 신고 아침의 가벼운 발걸음으로 거닐 → 가슴속 가득한 (14)_____를 깨끗이 씻어내고 (5)_____낀 산을 조망하는 시를 읊음

끝 자연의 주인이라는 깨달음과 유람의 끝없는 여정

- 향기로운 난초를 밟고 맑은 물을 움켜쥐며 자연과 오감으로 교감함
- 비단옷을 휘날리며 구름을 보고 짓는 개를 봄 → 속세를 벗어나 신선이 된 듯한 해방감을 경험함
- 산과 시내, 바람과 달은 정해진 주인이 존재하지 않음
- 주인 없는 대자연 → 그 아름다움을 느끼고 노니는 사람이 진정한 주인임을 깨달음
- 향기로운 풀을 밟고 기이한 경치를 두루 찾아다니며 유람을 계속 이어감

(1) 산수 (2) 규방 (3) 남장 (4) 부평초 (5) 안개 (6) 수양재 (7) 당태종 (8) 붉은 수레와 푸른 말 (9) 성채 (10) 선왕의 원대한 뜻 (11) 세 글자 (12) 유우석의 시 (13) 나막신 (14) 번뇌



극·수필 131 예상문항 1번 (가천대)

유형

N-5



신유형: 조건부 완성

[기출 동형] 26가천대42

하

중

상

〈보기〉의 ①~③에 들어갈 말을 제시문에서 찾아 〈조건〉에 맞게 쓰시오.

「호동서락기」의 글쓴이는 "여자로 태어났으니 깊은 담장 안에서 문을 닫아걸고 법도를 지키는 것이 옳은가"라고 반문함으로써 여성의 삶을 제약하는 당대의 사회적 규율에 비판적 인식을 드러낸다. 나아가 공자의 제자인 (①)이/가 기수에서 목욕하고 무우에서 바람을 씹고 글을 읊으며 돌아온 일을 본받겠다고 말하며, 옛사람의 일을 근거로 들어 여행을 떠나려는 자신의 생각을 정당화한다.

한양에 이르러 글쓴이는 "용이 서리고 호랑이가 웅크린 듯", "책상을 마주한 듯"과 같은 비유와 "북으로~남으로~"와 같은 대구를 사용해 도읍의 지형을 자세히 묘사한다. 특히 수양제와 당태종의 옛일을 인문 지식으로 끌어들이며 "(②)"라고 영탄적 어조로 진술하여, 경제와 안보의 측면에서 한양이 지닌 지리적 이점을 강조한다. 또한 시내의 변화하고 유희적인 정경까지도 "실로 밝은 세계의 태평한 기상"이라 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한편 삼계동과 백석실 일대를 유람한 뒤 지은 시(㉠)에서는, 화자가 신고 있는 (③)이/가 "팔랑팔랑 날개 돋은 듯 가볍네"라고 표현하여 아름다운 자연을 대하는 즐거움과 행복감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조건〉

- ①은 제시문에 나오는 인물명을 2자로 쓸 것.
- ②는 해당하는 문장의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순서대로 쓸 것.
- ③은 제시문(한시 번역부)에 나오는 시어를 4자 이내로 쓸 것.

① _____

② 첫 어절: _____, 마지막 어절: _____

③ _____



극·수필 131 예상문항 2번 (신한대)

유형 A



시어·구절 찾기

[기출 동형] 26신한대12

하

중

상

다음은 윗글의 두 한시 ㉠, ㉡에 쓰인 소재를 정리한 것이다. 〈보기〉의 ①, ②에 들어갈 시어를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

「호동서락기」의 글쓴이는 여정 중간중간에 한시를 삽입하여 유람의 흥취를 드러낸다. 두 한시에는 화자의 처지나 정서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소재가 각각 등장한다.

한시	소재	소재의 기능
㉠	(①)	"한가로이 (①)처럼 멀리 노닐기를 일삼아"에서 알 수 있듯이, 한곳에 머물지 않고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유람을 즐기는 화자 자신의 모습을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한 소재이다.
㉡	(②)	화자가 신고 있는 신발로, 이것이 "팔랑팔랑 날개 돋은 듯 가볍네"라고 표현함으로써 아름다운 자연을 마주하며 느끼는 즐거움과 행복감이라는 긍정적 정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소재이다.

① _____

② _____

극·수필 131 예상문항 3번 (한신대)

유형 N-7	신유형: 시행 첫·끝 어절 [기출 동형] 26한신대12	하 중 상
-----------	-----------------------------------	-------

다음은 윗글의 두 시 ㉠, ㉡을 감상한 내용이다. ㉠~㉢의 조건에 해당하는 시행을 각각 윗글에서 찾아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쓰시오. (단, 한시 원문이 아닌 번역된 우리말 시행에서 찾아 쓸 것.)

「호동서락기」에 삽입된 두 편의 한시는 여정 속에서 글쓰기가 느낀 정서를 압축적으로 담아낸다.

㉠ ㉠에서 화자는 자신의 처지를 물 위를 떠도는 자연물에 빗대어 유람을 일삼는 삶의 모습을 드러낸다.

㉡ ㉡에서 화자는 자신이 신은 신발의 가벼운 움직임을 묘사함으로써, 아름다운 자연을 대하며 느끼는 즐거움과 행복감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 ㉢에서 화자는 내면에 쌓여 있던 번민이 사라졌음을 밝힌 뒤, 눈앞에 펼쳐진 자연 경관을 바라본다.

- ① 첫 어절: _____, 마지막 어절: _____
 ② 첫 어절: _____, 마지막 어절: _____
 ③ 첫 어절: _____, 마지막 어절: _____

극·수필 131 예상문항 4번 (을지대)

유형 A	시어·구절 찾기 [기출 동형] 26을지대1	하 중 상
------	----------------------------	-------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에서 ㉠, ㉡에 해당하는 구절을 찾아 쓰시오. (㉠은 두 개의 비유 중 앞에 제시된 것 하나만 쓸 것)

항목	정리 내용
갈래	한문 기행 산문(여성이 쓴, 현전하는 최초의 기행 산문)
여정	금호 사군 → 금강산·관동 팔경 → 한양 → 관서 지역 → 한양
표현 (1)	여행 허락을 받은 직후의 심정을 동물에 빗댄 비유로 나타내어, 억압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은 해방감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한다. → (㉠)
표현 (2)	한양 시내의 변화한 정경을 묘사할 때 색채어를 활용한 소재의 열거를 통해 시각적 이미지를 선명하게 환기한다. → (㉡)
의의	여성에게 가해진 사회적 제약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인문 지식을 폭넓게 동원하는 지적 글쓰기 태도가 함께 나타남.

- ① _____

 ② _____



극·수필 131 예상문항 1번 (가천대)

출제 의도

• EBS 연계 방식: 문항연계. EBS 1번 정답 선지②('옛사람의 일을 근거로 들어 자신의 생각을 정당화')와 4번 오답 해설②(사회적 규율에 대한 비판적 인식), EBS 2번 선지①·②(비유·대구를 통한 지형 묘사, 영탄적 어조를 통한 지리적 이점 강조)와 정답 선지③의 판단 근거('태평한 기상'에 대한 긍정적 인식), EBS 3번 정답 선지④('나막신'=화자의 긍정적 정서를 드러내는 소재)를 하나의 해설문으로 통합 재구성한 뒤, 각 판단의 근거가 되는 인물명·문장·시어를 지문 원문에서 직접 추출하도록 빈칸화하였다.

• 측정 능력: ① 고전 수필의 논증 방식(고사 인용을 통한 자기 정당화)에서 근거로 동원된 인물을 특정하는 능력, ② 영탄적 어조로 대상의 가치를 강조한 문장을 여러 단락에서 정확히 변별하고 어절 단위로 지정하는 능력, ③ 한시 삽입부의 소재가 지닌 정서적 기능을 파악하는 능력.

정답과 해설

정답: ① 증점 ② 첫 어절: 하물며 / 마지막 어절: 있겠는가 ③ 나막신

해설:

① <보기>의 "공자의 제자", "기수에서 목욕하고 무우에서 바람을 씹고"가 결정적 단서다. 첫 단락에는 첨윤·굴원·증점이 함께 등장하지만, 이 구절을 그대로 이끄는 주어는 '증점'뿐이다. 앞의 두 사람은 유람이 아닌 다른 맥락의 인물이므로 배제한다.

② '수양재·당태종' 언급 직후 문장을 찾는다. '아아, 아름답도다'와 혼동하기 쉬우나, <보기>가 요구한 '경제(비옥·물산 풍부)+안보(천연의 요새)'를 함께 담은 문장은 '하물며~있겠는가'뿐이다. 첫·마지막 어절은 띄어쓰기 단위 그대로 옮긴다.

③ ㉠의 시행 "낮은 나막신 팔랑팔랑 날개 돋은 듯 가볍네"에서, '가볍네'의 주체이자 화자가 신은 사물을 찾으면 된다. 발이 가볍다는 표현은 유람의 흥취를 사물에 투영한 것이므로, 정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소재는 '나막신'이다.

채점기준

답안	배점
① 증점	3점
② 첫 어절: 하물며 / 마지막 어절: 있겠는가	4점
③ 나막신	3점



극·수필 131 예상문항 2번 (신한대)

출제 의도

• EBS 연계 방식: 문항연계 + 지문연계. EBS 3번 문항의 정답 해설("㉠의 '부평초'는 '멀리 노닐기를 일삼는' 화자의 모습을 자연물에 빗댄 표현이다", "'나막신'이 화자의 긍정적 정서를 드러내는 소재라는 설명도 적절하다")과 오답 해설 ①·⑤의 분석 논리를 <보기>의 표 서술로 재구조화하였다. EBS 선지·보기를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해설의 분석 내용을 출제자가 새로 작성한 '소재-기능' 대응표로 전환한 뒤, 해설이 정답으로 지목한 핵심 시어 두 개를 빈칸 정답으로 삼았다.

• 측정 능력: 한시에 삽입된 소재의 표현상 기능(자연물에 빗댄 자기 형상화, 정서의 간접적 표출)을 파악하고, 주어진 분석 설명에 대응하는 시어를 지문 원문에서 정확히 추출·표기하는 능력.

정답과 해설

정답: ① 부평초 ② 나막신

해설:

① <보기>의 "멀리 노닐기를 일삼아"를 단서로 ㉠의 첫 행을 찾으면 "한가로이 부평초처럼 멀리 노닐기를 일삼아"가 나온다. 빈칸 뒤 '처럼'은 비유 표지이므로, 정처 없이 떠도는 화자를 빗댄 자연물 '부평초'가 답이다. 한자 '浮萍'이 아닌 우리말 표기로 쓴다.

② <보기>가 '화자가 신은 신발'이라 못 박았으므로 ㉠에서 신발을 가리키는 시어를 찾는다. "낮은 나막신 팔랑팔랑 날개 돋은 듯 가볍네"의 주체가 곧 답이며, 가벼움이 유람의 즐거움을 대신 드러낸다. '낮은'은 수식어이니 '나막신'만 적는다.

채점기준

답안	배점
① 부평초	5점
② 나막신	5점



극·수필 131 예상문항 3번 (한신대)

출제의도

• EBS 연계 방식: 문항연계. EBS 3번 문항(㉠과 ㉡에 대한 설명) 선지 ①③④⑤의 핵심 판단 근거를 그대로 재활용하였다. 정답 선지 ④의 "㉠의 '부평초'는 유람을 즐기는 화자의 모습을, ㉡의 '나막신'은 화자의 긍정적 정서를 드러내는 소재"를 ㉠·㉡ 조건 진술로 전환하고, 오답 선지 ③의 해설("㉡의 '다 씻어 내니'는 화자 내면의 '괴로운 심사'가 사라졌음을 나타낸 표현")을 ㉢ 조건으로 전환했다. 5지선다의 '적절성 판단'을 '해당 시행 역 추적'으로 바꾼 한신대식 역추적형 악술 문항이다.

• 측정 능력: 시적 소재(부평초, 나막신)의 기능과 화자의 정서 변화(번민 해소 → 자연 조망)를 파악하고, 감상 진술과 대응하는 시행을 정확히 특정해 인용하는 능력. 특히 두 편의 삽입시를 구분하여 각 시의 정서적 초점을 변별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정답과 해설

정답: ① 첫 어절: 한가로이 / 마지막 어절: 일삼아 ② 첫 어절: 낮은 / 마지막 어절: 가볍네 ③ 첫 어절: 괴로운 / 마지막 어절: 내니

해설:

① '물 위를 떠도는 자연물'이라는 조건어가 ㉠의 '부평초'를 지시한다. 이 소재가 놓인 시행은 "한가로이 부평초처럼 멀리 노닐기를 일삼아"이므로, 소재어가 아닌 시행 양 끝을 옮겨 첫 어절 '한가로이', 마지막 어절 '일삼아'로 쓴다.

② '자신이 신은 신발'은 ㉡의 '나막신'이다. 가벼운 움직임이 즐거움을 드러낸 시행은 "낮은 나막신 팔랑팔랑 날개 돋은 듯 가볍네"이다. '나막신'은 둘째 어절이므로 첫 어절은 '낮은', 마지막 어절은 '가볍네'로 답한다.

③ 내면에 쌓인 번민은 '괴로운 심사'와 직결된다. 그것이 사라졌음을 밝힌 시행은 "괴로운 심사 펼쳐 내어 다 씻어 내니"이므로 첫 어절 '괴로운', 마지막 어절 '내니'가 답이다. 뒤이은 경관 묘사 시행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채점기준

답안	배점
① 첫 어절: 한가로이 / 마지막 어절: 일삼아	3점
② 첫 어절: 낮은 / 마지막 어절: 가볍네	3점
③ 첫 어절: 괴로운 / 마지막 어절: 내니	4점



극·수필 131 예상문항 4번 (을지대)

출제의도

• EBS 연계 방식: 문항연계. EBS 4번 문항〈보기〉의 감상 관점(여성 최초 기행 산문, 사회적 제약 비판, 색채어를 활용한 선명한 묘사, 지적 글쓰기 태도)과 ④번 선지의 '붉은 수레바퀴, 푸른 말발굽' 분석 내용을, 선택형이 아닌 출제자가 새로 작성한 작품 정리표로 재구성하여 해당 구절을 직접 찾아 쓰게 함. 아울러 EBS 1번 문항이 다룬 '여행을 결심하고 허락받는 대목 (〔A〕)'의 심리 형상화 방식을 비유 찾기 과제로 전환하였다.

• 측정 능력: 작품 해설(외적 준거)에서 제시된 표현상 특징을 지문의 구체적 구절과 정확히 대응시키는 능력, 비유적 표현과 색채어를 활용한 감각적 묘사를 식별하는 능력, 기행 산문에서 글쓴이의 정서와 그 형상화 방식을 연결하여 이해하는 능력.

정답과 해설

정답: ① 매가 새장을 나와 저 푸른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것 같고 ② 붉은 수레바퀴, 푸른 말발굽

해설:

① '동물 비유+해방감' 조건에 주목한다. 허락받은 직후 단락에 '매'와 '천리마' 두 비유가 나오므로, 앞의 것 하나만 쓰라는 조건에 따라 '매' 구절을 원문 그대로 옮긴다. '가슴이 트이려는' 비유가 아니다.

② '색채어 열거+한양 시내의 변화함' 두 조건을 함께 만족해야 한다. '흰 돌 푸른 산'은 색채어지만 백석산·세검정의 자연 풍경이므로 제외하고, 거리를 내달리는 수레와 말을 열거한 구절을 그대로 쓴다.

채점기준

답안	배점
① 매가 새장을 나와 저 푸른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것 같고	5점
② 붉은 수레바퀴, 푸른 말발굽	5점



05 극·수필

NOTE

132



김석주, 『해갑와기』

장면 1 (1)___의 거처를 통해 본 대소의 이치

- 옛 (1)___의 (2)___한 거처(띠불 지붕, 흙 계단) ↔ 뒷사람들의 화려하고 거대한 (3)___
- (2)___한 거처에서의 통치: 거처의 작음을 알지 못함 → 천하를 다스리는 (4)___를 베풀기에 충분함
- 장대하고 화려한 (3)___에서의 생활: 거처의 큼을 알지 못함 → (5)___을 다 채우지 못해 오히려 작다고 여김
- 작은 줄을 모르면 큰 것이 되고, 큼을 알지 못하면 작다고 여겨 오히려 더 키우려 함

장면 2 (6)___의 (9)___ 크기와 선비의 즐거움

- 벼 (7)___이 호숫가에 집을 짓고 작다는 뜻의 (6)___((8)___ 집)로 명명함
- 돌피 같은 몸통이로 (8)___만한 집에 사는 것 → 여유작작함
- 달팽이 뿔에는 두 나라가 싸우지만 (8)___는 온전한 한 집임
- 크고 작음이란 (9)___인 판단에 불과함
- 지붕, 서까래, 대문, 계단을 갖춘 (6)___ → 옛 (1)___이 살던 (2)___한 곳과 다름없음
- 가난한 선비의 즐거움은 도서와 문사로 옛 성현을 사모하는 것 ↔ 노래, 춤, 사치스러운 동식물 등
- 사치 부릴 일이 없으니 그 집을 결코 작은 집((8)___)으로만 볼 수 없음

장면 3 (10)___과 (11)___의 진정한 '꿈'을 향한 당부

- 굳이 클 필요가 없는 것((3)___) ↔ 반드시 커야 하는 것(군자의 (10)___과 (11)___)
- (10)___이 큼 → 도에 임함, (11)___이 큼 → 백세에 전해져 썩지 않음
- 스스로를 (8)___처럼 낮춤 → 어질게 됨 → (12)___이 됨 → (13)___과 합치됨 → 진정한 (11)___이 커짐
- 큰 (11)___을 위해 (10)___을 금선무로 삼아야 함 → (7)___에게 (10)___에 힘쓸 것을 권함
- 두보의 말(천만 칸의 넓은 집으로 세상의 (14)___를 덮어 기쁘게 함)을 인용함
- (10)___과 (11)___을 닦아 등용된 후 (14)___들을 구제하는 바탕이 됨 → 집을 (8)___라 불러도 괜찮음

NOTE

CONCEPTION 개념

(1) 제왕 (2) 소박 (3) 궁전 (4) 큰 정치 (5) 욕심 (6) 해갑와 (7) 홍언명 (8) 게딱지 (9) 상대적 (10) 학문 (11) 사업
(12) 성인 (13) 하늘 (14) 빈한한 선비



극·수필 132 예상문항 1번 (가천대)

유형

A-1



요약 빈칸 (수필)

[기출 동형] 26가천대18

하

중

상

〈보기〉는 윗글의 내용을 정리한 요약문이다. ①, ②에 들어갈 말을 윗글에서 찾아 그대로 쓰시오.

김석주의 「해갑와기」는 벼 홍언명이 호수의 구비에 지은 집을 기념하여 쓴 기문(記文)이다. 글쓴이는 띠풀과 흙 계단으로 된 소박한 거처에서 점차 황금과 옥으로 꾸민 장대한 궁전으로 변해 간 제왕들의 거처를 대비하면서, 크기란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것임을 밝힌다. 이어 글쓴이는 사물 중에 진실로 굳이 클 필요가 없는 것으로 궁실의 부류를 들고, 반대로 크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으로 군자의 (①)을/를 제시한다. 학문이 크지 않으면 도에 임하기에 부족하고 사업이 크지 않으면 백세에 전하여도 썩지 않기에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글쓴이는 그 사업을 능히 크게 하려는 선비라면 무엇보다 학문을 (②)(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여 둘 사이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벼이 나라에 등용되어 빈한한 선비들을 감싸 주는 인재가 되기를 기원한다.

① _____

② _____

①은 2어절, ②는 3자의 명사로 쓸 것.

두 답 모두 말미 조사는 제외할 것.



극·수필 132 예상문항 2번 (국민대)

유형 A



구절 찾기

[기출 동형] 26국민대20

하

중

상

〈보기〉는 윗글의 내용을 단락 흐름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①, ②에 들어갈 말을 윗글에서 찾아 쓰고, ③은 윗글의 표현을 활용하여 띄어쓰기 포함 25자 내외로 쓰시오.

단락	내용 요약
처음	옛 제왕은 띠풀 지붕과 (①)만 둔 누추한 거처에서도 '큰 정치'를 펼 수 있었으나, 뒷사람들은 궁전을 크고 화려하게 꾸미며 욕심을 다하지 못하였다.
중간	벼 홍언명은 집을 '해갑와'라 이름 지었고, 글쓴이는 크고 작음이 상대적임을 들어 "작지는 않은 섬"이라 하였다.
끝	굳이 클 필요 없는 것(궁실)과 달리, 크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은 군자의 (②)이다.
바람	홍언명이 (③) 빈한한 선비들을 감싸 주는 인재가 되기를 기원한다.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극·수필 132 예상문항 3번 (상명대)

유형 A	구절 찾기
	[기출 동형] 26상명대5

다음은 김석주의 「해갑와기」를 읽고 정리한 요약문이다. <보기>의 ①, ②에 들어갈 말을 윗글에서 찾아 그대로 쓰시오.

글쓴이는 옛 제왕들의 거처가 점점 크고 화려해진 과정을 들어, 크기란 대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것임을 밝힌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그는 벼 흉언명이 스스로 '해갑와'라 이름한 집이 실은 "작지는 않은 셈"이라고 말한다. 이어 글쓴이는 궁실과 같은 사물은 굳이 클 필요가 없으나, 군자의 (①)과 사업은 "크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단언한다. 특히 사업을 크게 이루려는 선비라면 무엇보다 (①)을 (②)(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벼이 나라에 등용되어 빈한한 선비들을 감싸 주는 바탕을 얻게 되기를 기원하고 있다.

- ① _____
 ② _____

극·수필 132 예상문항 4번 (삼육대)

유형 N-7	신유형: 문장 첫·끝 어절
	[기출 동형] 26삼육대7

다음은 김석주의 「해갑와기」를 읽고 정리한 감상의 틀이다. <보기>의 ㉠~㉣에 해당하는 문장을 윗글에서 각각 찾아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쓰시오. (단, 문장 부호는 쓰지 않아도 된다.)

「해갑와기」는 벼이 새로 지은 집을 기념하여 쓴 기문(記文)으로, 특정 사물에 대한 글쓴이의 사색과 탐구가 다음 세 단계로 전개된다.

㉠ [크기의 역설적 재해석] 글쓴이는 제왕의 거처가 점점 커져 온 과정을 서술한 뒤, '크다'와 '작다'라는 크기의 문제를 상식과 어긋나는 역설적 논리로 뒤집어 압축적으로 진술한다. 스스로 작음을 자각하지 못하는 태도가 오히려 큼으로 귀결된다는 통찰이 하나의 짧은 문장으로 제시된다.

㉡ [외형에서 정신적 차원으로의 전환] 글쓴이는 굳이 클 필요가 없는 것(궁실의 부류)과 반드시 커야 하는 것을 나란히 대비한다. 이 중 후자를 밝히면서, 선비가 절대적 가치를 두어야 할 대상이 집의 외형이 아니라 정신적 차원에 있음을 명시한 문장이 나타난다.

㉢ [자기 인식을 통한 궁극적 경지] 글쓴이는 '스스로를 계딱지로' 보는 겸허한 자기 인식이 어짊에서 성인(聖人)으로, 다시 그 이상으로 나아가는 단계를 이룬다고 본다. 그중 벼이 도달하기를 바라는 가장 높은 경지, 곧 '하늘'과의 관계로 진술된 문장이 제시된다.

- ㉠ 첫 어절: _____, 마지막 어절: _____
 ㉡ 첫 어절: _____, 마지막 어절: _____
 ㉢ 첫 어절: _____, 마지막 어절: _____



극·수필 132 예상문항 1번 (가천대)

출제 의도

• EBS 연계 방식: 문항연계. EBS 2번 문항의 정답 선지④('벗이 학문보다는 사업의 확장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살기를 바라는'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와 그 정답 해설의 핵심 근거인 "사업보다 학문을 '급선무로 삼'고 더 우선시해야 한다", 그리고 EBS 3번 선지⑤의 '크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정신적 차원의 절대적 가치 논리를 하나의 요약문으로 통합한 뒤, 판단의 핵심 개념어('학문과 사업', '급선무')를 빈칸으로 전환하였다.

• 측정 능력: 한문 수필의 논지 전개('굳이 클 필요가 없는 것' ↔ '크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의 대립 구조)를 파악하고, 글쓰기가 제시한 가치의 우선순위를 원문 어휘로 정확히 지목하는 능력.

정답과 해설

정답: ① 학문과 사업 ② 급선무

해설:

① <보기>의 '굳이 클 필요가 없는 것 = 궁실의 부류'와 대구를 이루는 구절을 찾는다. 지문 5문단 "크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느니, 군자의 학문과 사업이 그러하다"가 그 자리다. 빈칸 뒤 '학문이 크지 않으면~사업이 크지 않으면'이 두 항목을 다시 풀어 주므로 둘을 모두 써야 한다.

② <보기>의 '둘 사이의 우선순위'가 단서다. 학문과 사업을 함께 언급한 뒤 둘의 선후를 밝힌 문장, 즉 "사업을 능히 크게 할 수 있는 자가 진실로 학문을 급선무로 삼지 않는다면"에서 '급선무'를 그대로 옮긴다. '우선순위·최우선' 등 자기 말로 바꾸면 오답이다.

채점기준

답안	배점
① 학문과 사업	5점
② 급선무	5점



극·수필 132 예상문항 2번 (국민대)

출제 의도

• EBS 연계 방식: 문항연계 중심. EBS 2번 문항의 정답 선지④("학문보다는 사업의 확장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가 오답이 되는 근거인 "군자의 학문과 사업", "학문을 급선무로 삼"는다는 논리를 ②의 빈칸 개념어로 추출하였다. 또한 EBS 3번 문항 ④번 선지의 "빈한한 선비를 감싸 주는 바탕을 얻"는 인재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인과 서술을 ③의 짧은 서술형 정답 골격("학문에 힘쓰고 사업을 닦아 나라에 등용되어")으로 전환하였다.

• 측정 능력: 한문 수필의 논지 전개(소박한 거처 → 크고 작은 상대성 → 커야 할 것으로서의 학문과 사업 → 벗에 대한 기원)을 단락별로 요약·재구성하는 능력, 글쓰기의 핵심 주장을 담은 전문 개념어를 원문에서 정확히 추출하는 능력, 결론부의 기원 내용을 인과 관계에 맞게 압축 서술하는 능력.

정답과 해설

정답: ① 흙 계단 ② 학문과 사업 ③ 학문에 힘쓰고 사업을 닦아 나라에 등용되어

해설:

① 표에 '띠풀 지붕'이 이미 제시되었으므로, 이와 짝을 이루는 표현을 찾아야 한다. 첫 문단 "띠풀을 자르지 않고 흙 계단을 세 개만 두어"와 둘째 문단 "띠풀로 지붕을 인 집은 소박하였고, 흙 계단은 누추하였다"에서 '흙 계단'이 반복되므로 정답이 확정된다.

② '굳이 클 필요 없는 것(궁실)'과 대조되는 항목을 묻고 있다. 지문에서 이 대조가 드러나는 "크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느니, 군자의 학문과 사업이 그러하다"를 찾으면 된다. 뒤이어 "학문을 급선무로 삼"는다고 했으므로 둘을 모두 써야 한다.

③ 앞뒤 문맥이 '홍언명이 ~하여 빈한한 선비를 감싸 주는 인재가 되기를'이므로, 그 원인이 될 조건을 넣어야 한다. 두보 인용 뒤 "학문에 힘쓰고 사업을 닦아 나라에 등용되게 하여서"를 활용해 '학문·사업·등용' 세 요소를 25자 이내로 압축한다.

채점기준

답안	배점
① 흙 계단	2점
② 학문과 사업	2점
③ 학문에 힘쓰고 사업을 닦아 나라에 등용되 어	6점



극·수필 132 예상문항 3번 (상명대)

출제의도

• EBS 연계 방식: 문항연계 + 지문연계. EBS 2번 문항의 정답 선지 ④("벗이 학문보다는 사업의 확장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살기를 바라는")가 오답이 되는 판단 근거인 정답 해설의 핵심어 '급선무로 삼'을 그대로 빈칸 정답으로 추출하였다. 또한 EBS 3번 문항 ⑤의 인용구 "크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과 ④의 "빈한한 선비를 감싸 주는 바탕을 얻"을 요약문 진술에 그대로 유지하여, 선다형 선지 판단을 서술형 기입으로 전환하였다.

• 측정 능력: 고전 수필의 논지 전개(사물의 크기에 대한 상대적·역설적 인식 → 군자가 반드시 크게 해야 할 것 → 그 실현의 선후 관계)를 파악하고, 필자가 학문과 사업 중 무엇을 우선시하는지를 원문 표현으로 정확히 확인하는 능력.

정답과 해설

정답: ① 학문 ② 급선무

해설:

- ① 요약문에 "크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이 그대로 인용됐으므로 해당 원문 단락을 찾는다. 거기서 "군자의 학문과 사업이 그러하다"라는 짝 구조가 발견되고, 뒤이어 "학문이 크지 않으면 도에 임하기에 부족하고"로 확인 사살된다. 따라서 '사업'과 나란히 놓인 ①은 '학문'이다.
- ② 학문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묻는 자리다. "사업을 능히 크게 할 수 있는 자가 진실로 학문을 급선무로 삼지 않는다면"에서 학문이 사업의 선행 조건임이 드러나므로 '급선무'를 뽑는다. '우선·먼저'로 바꿔 쓰면 원문 불일치로 감점된다.

채점기준

답안	배점
① 학문	5점
② 급선무	5점



극·수필 132 예상문항 4번 (삼육대)

출제의도

• EBS 연계 방식: 문항연계. EBS 3번 <보기>의 이론 요소인 ㉠'크다/작다를 역설적 논리에 기반하여 재해석', ㉡'대상을 외형이 아닌 정신적 차원으로 전환', ㉢'선비들이 추구해야 할 절대적 가치'를 각각 ㉠·㉡·㉢의 세부 유형으로 재분류하여 대학 <보기>를 재구성하였다.

• 측정 능력: 한문 수필의 논지 전개 구조(사례 제시 → 역설적 명제화 → 대비를 통한 가치 전환 → 단계적 상승) 속에서 각 이론 요소에 대응하는 핵심 문장을 정확히 변별·추출하는 능력. 특히 유사 구조의 문장('굳이 클 필요가 없는 것' vs '크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 '성인이 되는 것' vs '하늘과도 합치될 수가 있다')을 조건에 따라 구별하는 정밀 독해력을 평가한다.

정답과 해설

정답: ㉠ 첫 어절: 작은 / 마지막 어절: 된다 ㉡ 첫 어절: 크지 / 마지막 어절: 그러하다 ㉢ 첫 어절: 이미 / 마지막 어절: 있다

해설:

- ㉠ <보기>의 '역설', '짧은 한 문장'이 열쇠다. 제왕의 거처가 커져 온 사례 뒤에 오는 결론부를 보면, 큰 줄 알면 작아지고 작은 줄 모르면 커진다는 대구가 나온다. 이 중 '작음→큼'의 방향만 담은 문장이 "작은 줄을 모르면 큰 것이 된다."이므로 첫 어절 '작은', 마지막 어절 '된다'로 답한다.
- ㉡ '굳이 클 필요가 없는 것'과 '반드시 커야 하는 것'이 짝을 이루는 대구를 찾는다. 앞 문장은 '궁실의 부류'로 끝나는 외형 관련 진술이므로 답이 아니고, 뒤 문장이 '군자의 학문과 사업'이라는 정신적 가치를 지목한다. 따라서 "크지 않아서는 안 되는~그러하다"가 정답이다.
- ㉢ '스스로를 계략지로 본다면'이 반복되는 두 문장을 구별해야 한다. 앞 문장은 '어진 사람→성인'의 중간 단계이고, 뒤 문장은 '성인→하늘과 합치'라는 최종 단계다. <보기>가 '가장 높은 경지', '하늘'을 명시했으므로 후자를 골라 '이미'와 '있다'를 쓴다.

채점기준

답안	배점
㉠ 첫 어절: 작은 / 마지막 어절: 된다	3점
㉡ 첫 어절: 크지 / 마지막 어절: 그러하다	3점
㉢ 첫 어절: 이미 / 마지막 어절: 있다	4점



05 극·수필

NOTE

133



이상, 「산촌 여정」

처음 (1)____의 쓸쓸한 정경과 고요한 밤

- 향기로운 (3)____의 미각을 잊은 채 (1)____에서 지낸 지 이십여 일째임
- 신문도 잘 안 오고 가끔 오는 편지에 적힌 사연으로 마을 사람들과 자신 모두 (2)____의 일을 걱정함
- (4)____의 야생동물들을 보며 동물원 짐승을 자연에 풀어준 것 같은 착각을 느낌
- 수정처럼 맑은 공기와 밤하늘의 무수한 별을 보며 고요함을 느낌 ((1)____의 맑은 별빛 ↔ (2)____)

중간1 객주집 방에서의 고독과 감각적 상념

- 客主(객주)집 방 (5)____의 그윽한 냄새로 소년 시대의 (10)____을 상기함
- 등잔에 앉은 (6)____소리를 들으며 (2)____여차장의 차표 찍는 소리와 이발소 가위 소리를 연상함
- (7)____을 꺼내어 머루 빛 잉크로 (1)____의 시정을 기록함
- 밤중에 마시는 차가운 (8)____에서 석영질 광석 냄새와 싸늘한 한기를 느낌

중간2 깊어가는 밤의 불안과 뒤숭숭한 (10)_

- 청석 지붕에 내리쬐이는 별빛, 벌레 소리, (9)_____ 소리가 어우러져 기계적인 분위기를 느끼며 졸음에 빠짐
- (10)_____속에서 (2)_____ 소녀와 가난한 식구들을 보며 불안과 걱정, 험담 → 잠에서 깨어 버림
- 뒤숭숭한 (10)_____자리 → 내일은 화초만 보고 알코올로 근심을 문지르며 즐거운 (10)_____을 꾸고 싶어 함

끝 (1)_____의 아침 풍경과 생명력 넘치는 화단

- 화려한 고향인 (2)_____ ↔ 활엽수 산으로 가려진 고독한 (1)_____
- 아침 마당의 부스럭 소리에 깨어나 소실된 밤의 흔적인 (5)_____ 불을 발견함
- 마당 모퉁이 화단의 (11)_____와 (12)_____에서 지하로부터 빨아올리는 정열과 호흡을 느낌
- 흰 (12)_____도 꼭두서니 빛으로 곱게 물들어가는 모습에서 생명력 넘치는 자연을 관조함

NOTE

CONCEPTION 개념

(1) 산촌 (2) 도회 (3) MJB 커피 (4) 팔봉산 (5) 석유 등잔 (6) 베짖이 (7) 비망록 (8) 냉수 (9) 맥박 (10) 꿈 (11) 맨드라미 (12) 봉선화



극·수필 133 예상문항 1번 (가천대)

유형

C-1



EBS 보기 빈칸 (문학)

[기출 동형] 26가천대4

하

중

상

다음은 EBS 수능특강 3번 문학의 <보기>와, 이를 바탕으로 윗글과 [A]를 비교한 학생의 감상문이다. ①~③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조건에 맞게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

선생님: 이상은 폐병을 앓던 시기에 평안남도 성천에서 요양하며, 그곳에서 지낸 일상을 「산촌 여정」과 「권태」로 형상화했습니다. 두 작품을 비교해 볼까요?

어서—차라리—어두워 버리거나 했으면 좋겠는데—벽
촌의 여름—날은 지리해서 죽겠을만치 길다.

(중략)

이 마을에는 신문도 오지 않는다. 소위 승합자동차라는
것도 통과하지 않으니 도회의 소식을 무슨 방법으로 알
랴?

답답한 하늘, 답답한 지평선, 답답한 풍경, 답답한 풍
속 가운데서 나는 이리 텅굴 저리 텅굴고 싶을 만치 답
답해하고 지내야만 된다. 인간은 병석에서도 생각한다.
아니 병석에서는 더욱 많이 생각하는 법이다. …… [A]
— 이상, 「권태」

학생: 두 작품 모두 성천에서 도회의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없는 처지를 드러내는데, [A]가 '이 마을에는 신문도
오지 않는다.'라고 단정한 것과 달리 윗글은 '(①)'라고
하여 소식이 아주 끊긴 것은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A]는 어두워지기 전의 답답한 풍경만을 보여 주는 데
비해, 윗글은 고요한 성천의 밤하늘을 밝히는 별의 속성
을 "(②)"라는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편 윗글
에는 [A]와 달리 '(③)'라는 호칭이 나타나, 글쓴이가
자신의 성천 생활을 특정 인물에게 전달하는 형식을 취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A]에 제시된 '병
석'의 처지는 윗글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조건〉

- ①: 윗글의 첫째 단락에서 찾아 4어절로 쓸 것.
- ②: 해당하는 문장 전체의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순서대로 쓸 것. (문장 부호 제외)
- ③: 호칭을 한자 없이 2음절로 쓸 것.

① _____

② 첫 어절: _____, 마지막 어절: _____

③ _____



극·수필 133 예상문항 2번 (강남대)

유형

N-9



신유형: 사건 순서 배열

[기출 동형] 26강남대5

하

중

상

다음은 이상의 「산촌 여정」에 제시된 '나'의 하루 일과를 정리한 것이다. <보기>에 제시된 사건을 글쓴이가 체험한 시간 순서에 맞게 배열하시오.

a. 목이 말라 심해처럼 가라앉은 냉수를 마시며, 폐부에
한란계 같은 길이 생기는 것을 느낀다.

b. 객줏집 방에 석유 등잔을 켜 놓고, 등잔에 올라앉은
베짱이의 소리를 도회의 여차장이 차표 찍는 소리에 빗
대어 가만히 듣는다.

c. 아침 별에 마당이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을 깨고, 마
당 한 모퉁이 화단에서 불타오르는 듯한 맨드라미꽃과
봉선화를 바라본다.

d. '파라마운트' 회사 상표처럼 생긴 도회 소녀가 나오는
꿈을 꾸다가, 도회에 남겨 두고 온 가난한 식구들을 꿈에
보고 잠에서 깨어 버린다.

순서: _____ → _____ → _____ → _____

극 · 수필 133 예상문항 3번 (상명대)

유형 A	구절 찾기
[기출 동형] 26상명대5	하 중 상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이 작성한 감상문의 일부이다. ①, ②에 들어갈 말을 윗글에서 찾아 그대로 쓰시오.

「산촌 여정」의 글쓰이는 도시인의 시각으로 산촌의 풍물을 바라보며, 이를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와 참신한 비유로 형상화한다. 산촌의 밤 정경을 서술할 때에는 자연물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데, 팔봉산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사람이 침소로 들어가는 것에 견주고, 밤공기가 맑은 정도를 (①)에 견주어 '별빛만으로라도' 누가 복음을 읽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다. 한편 아침에 잠을 깬 뒤 마당의 정경을 서술하는 부분에서는 색채어를 활용하여 자연물을 생동감 있게 드러내는데, 마당에서 활동하는 잠자리를 (②) 잠자리라고 표현한 것이 그 예이다. 이처럼 글쓰이는 산촌의 자연물조차 근대적·이국적 이미지로 바꾸어 놓는 개성적 감각을 보여 준다.

- ① _____
② _____

①은 조사를 제외한 2자, ②는 3자로 쓸 것.

극 · 수필 133 예상문항 4번 (수원대)

유형 A	구절 찾기
[기출 동형] 26수원대4	하 중 상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이 작품의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보기)의 ①, ②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윗글에서 찾아 그대로 쓰시오. (글자 수 제한 없음)

「산촌 여정」은 서술자 '나'가 산촌에서 보낸 하루의 일상을 감각적 이미지와 참신한 비유로 형상화한 수필이다. 특히 이 글은 자신의 산촌 생활을 특정한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도회와 대비되는 산촌의 자연을 새롭게 발견하는 시선이 두드러진다.

감상 요소	근거가 되는 표현	감상 내용
서술 대상의 설정	(①)	'나'가 산촌 생활에 대한 상념을 전달하는 특정 인물을 직접 호칭함으로써, 편지글과 같은 말 건네기 방식이 드러난다.
밤 정경의 감각적 형상화	(②)	도회와 달리 매우 맑고 고요한 산촌의 밤하늘과, 그 밤을 밝힐 만큼 밝은 별빛의 속성을 과장된 비유로 제시하고 있다.

- ① _____
② _____

①은 호칭으로 쓰며, 한자는 생략해도 된다.
②는 해당하는 문장 전체를 쓸 것.



극·수필 133 예상문항 1번 (가천대)

출제 의도

• EBS 연계 방식: 문항연계. EBS 3번 문항의 <보기>(선생님 발화 + 「권태」 [A])를 핵심 근거 문장만 남겨 축약 인용한 뒤, 정답 선지 ④와 매력적 오답 선지 ②·③·⑤의 판단 논리를 학생 감상문으로 통합 재구성하였다. ⑤(도회 소식 차단)의 대비 근거를 ①의 빈칸으로, ②(별의 속성)를 구절 추출형 ②로, ③(특정 인물에게 전달)을 호칭 개념어 ③으로 전환하고, ④(병석 부재)는 감상문 마지막 문장으로 남겨 정답 검증 단서로 활용하였다.

• 측정 능력: 동일 작가의 두 수필을 대조하며 공통점 속의 차이(신문 수신 여부)를 구별하는 정밀 독해력, 감각적 이미지가 구현된 문장을 어절 단위로 정확히 지정하는 능력, 수필의 말 건네기 대상(청자)을 지시하는 표현을 원문 그대로 찾아내는 능력을 평가한다.

정답과 해설

정답: ① 신문도 잘 아니 오고 ② 첫 어절: 그러나 /

마지막 어절: 같습니다 ③ 정 형

해설:

① '~와 달리'는 대조 표지이므로, [A]의 "신문도 오지 않는다"에 대응하되 뜻이 다른 표현을 첫 단락에서 찾는다. "신문도 잘 아니 오고"는 '잘'이 붙어 완전 차단이 아님을 뜻하고, 뒤의 '체전 부가 이따금 소식을 가져옵니다'가 이를 뒷받침한다.

② 별빛의 밝기를 설명하는 문장 전체는 '그러나 공기는 수정처럼 맑아서'로 시작하여 '같습니다'로 끝난다. 쉼표나 연결 어미 뒤에서 끊지 않고 첫 어절 '그러나'와 마지막 어절 '같습니다'를 쓴다.

③ '호칭'이자 '특정 인물에게 전달하는 형식'이라는 단서에 주목한다. 수필에서 말 건네는 대상은 보통 부름의 말로 등장하므로, 느낌표가 붙은 부분을 찾으면 넷째 단락 '정(鄭) 형(兄)!'이 보인다. 2음절 조건에 맞춰 한자 없이 '정 형'만 쓴다.

채점기준

답안	배점
① 신문도 잘 아니 오고	3점
② 첫 어절: 그러나 / 마지막 어절: 같습니다	4점
③ 정 형	3점



극·수필 133 예상문항 2번 (강남대)

출제 의도

• EBS 연계 방식: 문항연계. EBS 1번 문항 오답 해설 ①의 "산촌의 밤의 풍경 → 그 속에서 느끼는 정서 → 도회 소녀가 나오는 꿈, 가난한 식구들을 본 꿈 → 아침에 잠에서 깨어 바라본 화단의 식물들"에 대한 서술이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글쓴이가 산촌에서 겪은 일상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판단 근거를 그대로 이식하였다. 즉 EBS 선지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서술'이라고 설명한 것을, 수험생이 지문에서 직접 사건을 추출하여 재구성하게 하는 선지→정답 역변환 구조이다.

• 측정 능력: 수필의 서술이 밤의 정경 → 꿈 → 아침으로 이어지는 시간적 순차 구조임을 파악하는 능력, 시간을 명시하지 않은 감각적 묘사 속에서 시간 표지("얼마 있으면", "그러다가 어느 사이에", "아침에")를 찾아 장면의 선후 관계를 확정하는 종합적 독해 능력.

정답과 해설

정답: b → a → d → c

해설:

① b는 객주집에서 등잔을 켜고 베짖이 소리를 듣는 장면이다. 제시된 네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서술된다. 이어 비망록에 시정을 기록한 뒤 냉수를 마시는 a가 나온다.

② a → 등잔 장면 뒤에 "얼마 있으면 목이 마릅니다"라는 시간 표지가 이어진다. 냉수 장면 다음에 졸음이 온다는 서술이 나오므로, 밤은 깊었으나 아직 잠들기 전 단계다. 따라서 b 뒤, d 앞이다.

③ d → "그러다가 어느 사이에"는 잠든 뒤 꿈속 상황임을 알리는 신호다. 도회 소녀 꿈에서 가난한 식구들 꿈으로 이어지다 "그만 잠이 깨어 버립니다"로 닫히므로, 냉수 장면 뒤·아침 앞에 놓인다.

④ c는 아침에 마당의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을 깨고 화단의 꽃을 바라보는 장면이다. 밤의 꿈과 잠 깬 뒤 서술한 d 뒤에 나오므로, 정답은 b → a → d → c이다.

채점기준

답안	배점
b → a → d → c	10점



극·수필 133 예상문항 3번 (상명대)

출제의도

• EBS 연계 방식: 문항연계. EBS 1번 문항 선지 ②('색채어를 활용하여 산촌의 자연물을 생동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와 선지 ③('자연물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여 산촌의 밤의 정경을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그 오답 해설에서 근거로 제시된 '공기는 수정처럼 맑아서', '새빨간 잠자리'를 정답 포인트로 추출하였다. EBS의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기'(선택형)를 출제자가 새로 작성한 감상문 요약 단락의 빈칸 기입형으로 전환하여, 표현상 특징을 판단하는 근거 어휘를 학생이 직접 지문에서 찾아 쓰도록 하였다.

• 측정 능력: ① 비유(직유)·색채어라는 표현 기법 개념을 실제 본문 구절과 대응시키는 능력, ② 해제에 제시된 '감각적 이미지·비유적 표현'이라는 감상 관점을 근거로 지문 원문의 핵심 어휘를 정확히 인용하는 능력.

정답과 해설

정답: ① 수정 ② 새빨간

해설:

① 빈칸이 '밤공기가 맑은 정도를 ~에 견주어'라는 직유 구조이고, 뒤에 '별빛만으로도'라는 원문 표현이 그대로 인용되어 있다. 이 단서로 '공기는 수정처럼 맑아서 별빛만으로도...' 문장을 찾아, '~처럼' 앞의 보조관념 '수정'만 뽑아 쓴다.

② 아침 마당에서 활동하는 잠자리를 꾸미는 색채어는 '새빨간'이다. '연둣빛'은 밤에 등잔 위에 올라앉은 베짚이의 색채로, 봉선화의 색이 아니다. '새빨간'을 원문 그대로 쓴다.

채점기준

답안	배점
① 수정	5점
② 새빨간	5점



극·수필 133 예상문항 4번 (수원대)

출제의도

• EBS 연계 방식: 문항연계 + 지문연계. EBS 3번 문항 선지 ③('특정 인물에게 '나'의 성천 생활을 전달하고 있음')과 선지 ②('고요한 성천의 밤하늘을 밝히는 별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음')의 오답 해설에 제시된 판단 근거를 그대로 정답 풀로 활용하였다. 즉 EBS 선지가 '설명(해석)'을 주고 적절성을 묻는 방식이었던 것을, 수원대식 '선지→빈칸' 역설계 전략에 따라 해석을 조건으로 고정하고 해당 구절을 지문에서 찾아 쓰게 하는 역방향 문항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EBS 1번 선지 ③(비유적 표현을 통한 밤 정경 서술)의 근거 구절과도 겹치도록 정답을 설계해 연계도를 높였다.

• 측정 능력: 수필의 서술 상황(말 건네기 대상)을 파악하는 능력, 감각적·비유적 표현의 기능을 이해하고 해당 표현을 지문에서 정확히 인용해 내는 능력.

정답과 해설

정답: ① 정(鄭) 형(兄) (또는 '정 형')

② 그러나 공기는 수정처럼 맑아서 별빛만으로도 넉넉히, 좋아하는 누가복음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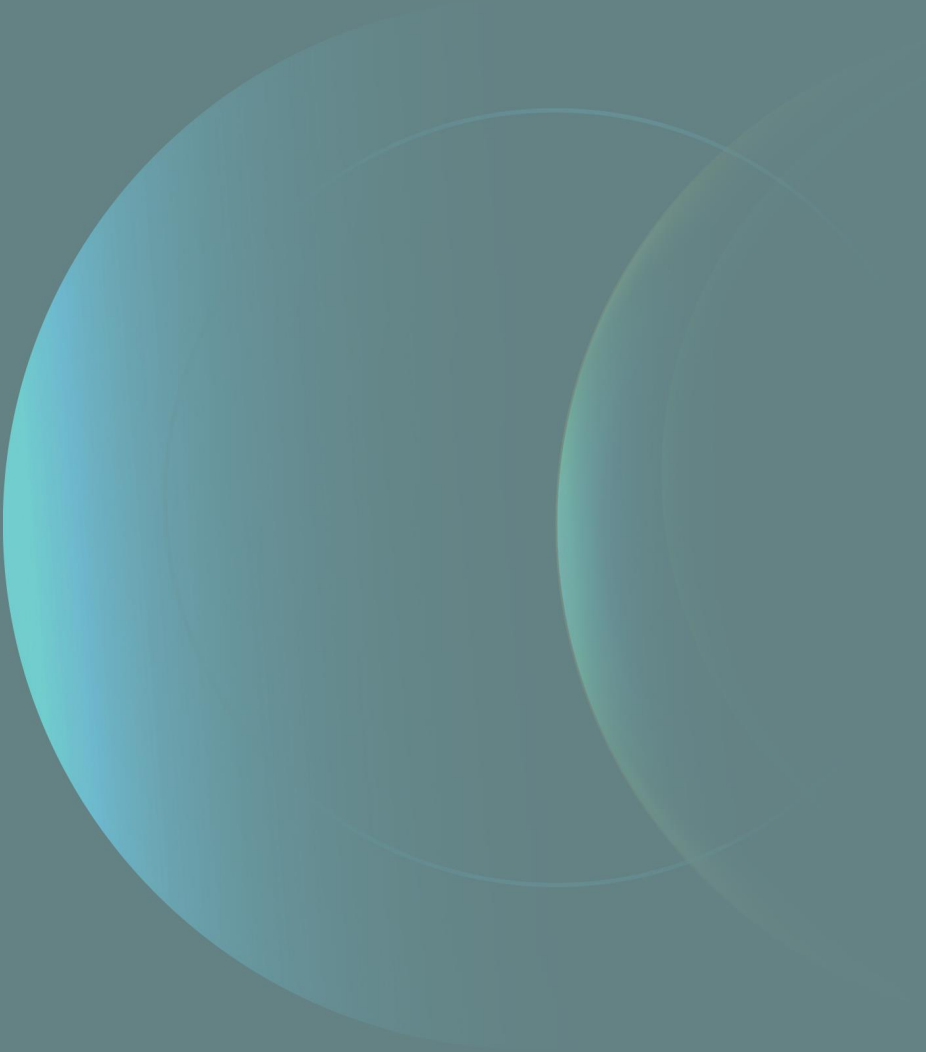
해설:

① '직접 호칭'이 조건이므로 부르는 말을 찾는다. 지문에서 말을 건네는 대상이 드러난 곳은 석유 등잔 대목의 '정(鄭) 형(兄)!'뿐이다. 이 호칭 덕분에 편지글 같은 말 건네기 방식이 성립하므로, '형·벗'처럼 일반화하지 않고 원문대로 쓴다.

② 별 관련 구절은 개수(갑절이나 많이), 고요함(운행하는 기척), 밝기 세 가지다. 조건이 '밤을 밝힐 만큼 밝은 속성'과 '과장된 비유'이므로, 별빛으로 책을 읽는다는 과장이 담긴 문장을 원문 그대로 옮겨 쓴다.

채점기준

답안	배점
① 정(鄭) 형(兄) (또는 '정 형')	5점
② 그러나 공기는 수정처럼 맑아서 별빛만으로도 넉넉히, 좋아하는 누가복음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점



STUGYM KOREAN